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OVER STORY

창단 40주년 맞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세계의 콘서트홀

위트레흐트의

티볼리브레덴부르크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40년



2024 5월 Vol.389



● 푸치니 서거 100주년 ● 포레 서거 100주년 ● 스메타나 탄생 200주년

2024 제17회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기념)

김해국제음악제

THE 17TH GIMHAE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동아시아 화합 콘서트

Companion
和谐

05.18.SAT.17:00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

• Artist

피아니스트 노경원 / 바이올리니스트 Tami Pohjola / 첼리스트 Victor Coo
소프라노 조선형 / 테너 Hui Jin / 지휘 서희태 / KNN방송교향악단

• Program

• Beethoven Triple Concerto in C-Major, op.56 / 베토벤 삼중협주곡
• Puccini Masterpieces of Opera Arias / 푸치니 오페라 아리아 중 명작들

동양의물결

Oriental Wave
Piano Gala Concert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05.28.TUE.19:30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늬홀

• Artist

피아니스트 노경원 / Kiai Nara / Longxuan Wu / 김상일 /
최원석 / Hinako Tsuruga / Yutong Zhang
플루티스트 이주형

• Program

하이든 마에스트로와 제자
드뷔시 탐, 황폐한 절에 걸린 달, 금빛 물고기
포레 모르소드 콩쿠르, 판타지
윤이상 5개의 모음곡
라흐마니노프 왈츠, 로망스
스메타나 나의조국 중 몰다우

• 예약방법

• 본 공연은 전석 무료초대입니다.(선착순)
• 반드시 사전예약(QR코드, 전화예약) 후
공연 당일 좌석권으로 교환하여야 입장 가능합니다.(만6세 이상 관람가)

사전예약 QR



또는

사전예약 전화

010-7508-3858

문의 홈페이지 : www.gimf.kr 전화 : 010-7508-3858
이메일 : concertgimf@gmail.com

주최 김해시 인제대학교 주관 GDMF 김해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인제음악예술교육센터 후원 경상남도 GYEONGNAM

* 본 행사는 경상남도와 김해시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합니다.



40 Anniversary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40주년 기념음악회 불혹의 나이, 100년을 꿈꾸며...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 김영동, 김정수, 이동훈 사회 배양현
단소 장명화 가야금 장혜숙 정가 이희재, 김윤지 남도민요 박성희, 정선희 경기민요 김보연, 이소정

Program

1984...그날의 시작 / 단소 수상곡 / 단군신화
육자배기-동백타령-노랫가락-매화타령-뱃노래 / 국악축전 "미래"

2024. 5. 23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4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무료(홈페이지 사전 예매, 1인 4매 한)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부산시립무용단 제89회 정기공연

'빙빙'

연출/안무

이정윤

음악감독

손성제



빙빙

BEING
BEING

우리를 맴도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2024

5.17

5.18

FRI 07:30 pm

SAT 03:0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무용단

관람연령

초등학교 1학년 이상

티켓

R석 3만원 / S석 2만원

문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051)607 - 6000

부산시립극단 제77회 정기공연
예술교육공연

음악극

나혜석

대본/작사/연출 | 김지용 작사/작곡/편곡 | 백현주 지휘 | 이기선, 임희준 안무/움직임연출 | 홍충민

2024. 5. 18. ~ 6. 1.

일반공연 **금요일 19:30, 토요일 17:00**

단체관람 **화수목 10:30 / 14:00, 금요일 14: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051-607-6000(ARS 1번) 단체관람 문의 051-607-3113, 3115(공연사업팀)

티켓 전석 20,000원 관람연령 중학생이상 관람가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5월 가정의 달에 선보이는 **합창음악극**

엄마, 같이 걸을까

연출 김희연
지휘 천경필

2024.
5. 25.SAT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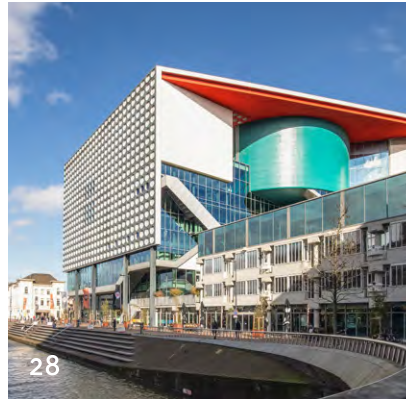
입장료 균일 3천원(지정좌석제)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24. 5월호 Vol.389



Cover Story 08 창단 40주년 맞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세계의 콘서트홀 ⑬ 28 위트레흐트의 티볼리브레덴부르크

Cultural Issue 32 유니버설 발레단, 한국 발레의 도약을 견인한 40년

Preview 38

문화가 화제 50 2024 제21회 부산국제연극제

Review 54

Program Guide 58

New Book 69



불혹의 나이, 100년을 꿈꾸다

창단 40주년 맞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 40주년을 맞았다. 1984년 5월 23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현 서울시국악관현악단, 1965년 창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창단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전통음악을 이어받아 시대의 음악으로 만들자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묵묵히 한길을 걸어왔다.

국악관현악단의 등장

부산에 국악관현악단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부산국악관현악단이 1973년 3월 1일 창단, 그 해 10월 1일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단장 조백진을 중심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초대 상임지휘자였던 이의경을 비롯 조창훈, 박정배, 이세환 등 국악사양성소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창단했는데, 당시 국악관현악단의 출범은 무대예술로의 지향뿐 아니라 민속악 외에도 일반인들이 이전에는 접할 수 없었던 정악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녔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창단 2년만인 1975년 제2회 정기연주회(8월 30일)를 끝으로 해산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79년 12월 7일, 창단 멤버였던 이의경이 주축이 되어 부산국악관현악단은 재창단공연을 갖고 1984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하기 전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간다. 단장이었던 이의경은 이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에 큰 역할을 했으며, 초대 상임지휘자(1984년 5월~1989년 12월)로 초창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이끌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1980년대에 들어 사회적으로 점차 '우리 것을 알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82년에는 부산, 경남지역의 유일한 고등 국악교육기관

인 부산대학교 국악과(현 한국음악학과)가 설립되면서 국악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젊은 국악인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당시 부산시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이 시급함을 인정하면서도 예산과 인원 확충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1983년 7월 30일, 부산 출신의 정치인들이 마련한 부산지역 문화예술단체 임원 초청간담회(민정단 주관)를 계기로 창단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듬해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었다. 초대 상임지휘자로는 이의경을 위촉하고 신입단원 오디션을 거쳐 24명의 비상임단원도 선발했다. 선발 당시 비상임이었던 단원들은 이듬해 상임으로 위촉됐다.

그 해 9월 21일 열린 창단연주회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부 전통음악, 2부 창작음악으로 나뉘어 1부에서는 국악관현악 '평조화상' 중 '염불, 타령, 군악', 대금독주 '요천순일지곡', 시나위, 대취타를, 2부에서는 가야금합주(황병기 곡), 가야금협주곡 제1번(이강덕 곡), 만선(황의종 곡)을 연주했다. 특히 이날 초연된 '만선(滿船)'은 창단연주회 위촉곡으로, 그 해 대한민국 작곡상 국악부문에서 대상없는 우수상을 차지하여 더욱더 화제가 됐다.

창작곡 개발에 힘을 쏟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초대지휘자인 이의경을 시작으로 제2대 지휘자 김영동, 제3대 지휘자 故김용만, 제4대 지휘자 배양현, 제5대, 제6대 지휘자 박호성, 제7대 지휘자 김철호, 제8대 지휘자 이정필, 제1대 예술감독 김정수, 제9대 지휘자 김종욱, 그리고 현재 제2대 예술감독 이동훈을 영입하여 열정적이고 참신한 레퍼토리로 우리음악의 예술적 향상과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전문연주자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 기획연주회와 덴마크, 터키, 싱가포르, 인도,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미국, 독일, 호주 등 국내외 다양한 연주회에서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며 한국 전통문화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서울보다 비교적 늦게 창단되었지만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회 정기연주회 때마다 창작곡을 위촉, 연주하고 음반과 악보집을 내는 등 창작곡 개발에 힘을 쏟아왔다. 1998년 전국 시도립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창작곡 음반을 출판하여 지금까지 4개의 음반을 출판했으며, 이 외에도 창단 후 발표한 위촉곡들을 수록한 악보집 '한국음악창작곡집'을



제15집까지 발간했다. 이렇듯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작 곡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창작곡 발굴에 힘을 쏟은 점은 한국음악사의 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혹의 나이, 100년을 꿈꾸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창단일인 5월 23일 제225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창단 40주년 기념공연을 연다. '불혹의 나이, 100년을 꿈꾸며'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이끌었던 역대 지휘자와 예술감독, 그리고 前 단원이 함께 하는 특별한 무대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혹(不惑)을 발판삼아 100년으로 나가기 위한 무대를 선사한다. 제4대 수석지휘자를 역임한 배양현 전 부산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제2대 수석지휘자 김영동, 제1대 예술감독 김정수, 그리고 현 예술감독이자 수석지휘자인 이동훈이 지휘를 맡아 지난



40년 동안 만들어진 위촉곡을 모아 영상과 함께 40년을 되돌아보는 '1984년, 그날의 시작'(김창환 작곡)과 앞으로 100년을 꿈꾸며 새롭게 위촉한 '국악축전 미래'(이정호 작곡)를 들려준다. 사회를 맡은 배양현은 2002 부산아시아게임 개폐회식 공연음악 지휘, 2018년~2020년 국악방송 '국악산책'을 진행했으며, 제11회 봉생문화대상(공연부문)을 수상했다.

역대 지휘자와 예술감독, 前 단원이 함께하는 무대

첫 무대인 국악관현악 '1984년, 그날의 시작'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40년 역사가 담긴 위촉 창작곡을 메들리로 작곡, 이동훈 예술감독의 지휘로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단소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수상곡'(김희조 곡)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을 역임한 장명화(단소), 장혜숙(가야금)의 협연으로 펼쳐진다. 협연자 장명화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및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대구시립국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구례향제줄풍류 명예보유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장혜숙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및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일파가야금합주단 단장, 영남국악원 원장으로 있으며 제35회 부산음악상을 수상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이어서는 역대 지휘자와 함께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우선 제2대 수석지휘자를 역임한 김영동은 본인이 1983년 작곡한 국악관현악 '단군신화'를 들려준다. 단군을 통한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강림, 백의, 홍익 3장으로 나누어 표현한 작품으로, 백의 부분에서는 '하늘나라 하늘님네, 땅의 나라 땅의님네, 단군할아버님'이라는 남녀정가풍의 노래를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희재, 김윤지가 노래한다. 지휘자 김영동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경기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 작곡상, 벨기에 국제영화제 음악상, 아시아영화제 음악상, 대중상영화제 음악상을 수상하고 2000 밀레니엄 판 뉴 그로브 음악사전에 세계의 작곡가로 등재되었다.

초대 예술감독인 김정수는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을 역임한 경기민요 이수자 김보연, 이소정과 함께 민요모음곡 '육자배기-동백타령-노랫가락-매화타령-뱃노래'(이지영 편곡)를 들려준다. 김정수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 한국청소년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추계예술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40주년을 기념하는 축전곡으로, 경쾌하고 힘찬 에너지를 가득 담아 미래를 향해 나아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열정과 포부를 담은 '국악축전 미래'를 부산 초연으로 들려준다. 한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0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에 이번 기념공연의 위촉초연곡으로 참가, 창단 4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의 전통과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하반기에 열리는 두 번째 기념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오는 10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227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두 번째 기념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음악의 거장 박범훈'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의 발전과 대중화를 이끌어온 국악계의 거장 박범훈의 객원지휘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새로운 100년을 응원한다.



지휘 김영동



지휘 김정수



지휘 이동훈



사회 배양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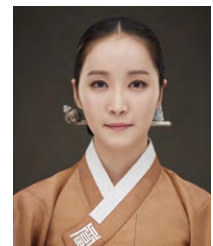
단소 장명화



가야금 장혜숙



정가 이희재



정가 김윤지



소리 박성희



소리 정선희



경기민요 김보연



경기민요 이소정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40년 역사의 노춧돌을 놓다

제4대 수석지휘자 역임한 배양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지난 40년을 돌이켜 보니 만감이 교차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5월 23일 창단 40주년을 맞는다. 1965년 창단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현 서울시국악관현악단, 1965년 창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창단됐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으로 지난 40년간 우리의 전통음악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1996년 2월부터 5년간, 제4대 수석지휘자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이끈 배양현 선생은 합리적인 성격과 강한 프로의식으로 창단 초기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부산대학교 국악과(현 한국음악학과) 교수로 있으며 국악관현악단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실력있는 젊은 국악인들을 키워내는데도 앞장서 왔다.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전만 하더라도 부산은 민요나 농요, 민속놀이, 민속극 같은 향토성 짙은 민속음악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국악관현악단이 출범하면서 국악을 무대예술로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됐고 일반인들도 당시 접하기 어려웠던 정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됐죠.”

배양현 선생은 원래 피리를 전공했다. 국악사 양성소(국악고등학교 전신)를 거쳐 서울대학교 국악학과와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1978년부터 1985년 2월까지 국립국악원에서 피리연주자 겸 이습지휘자(트레이너)를 지냈다. 부인과의 연애로 부산과의 인연이 시작되어 부산대학교 국악학과가 개설된 1982년, 결국 부산행을 결심했다. 그는 1989



년 부산대학교 교수로 발령받기 전 경북대학교에서도 교수직을 제안 받았지만 부산을 떠날 수 없어 포기한 적도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역사보다 더 오래 부산과 함께한 그는 스스로 부산사람이라 자부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서울보다 늦게 창단되었지만 창단연주회 때부터 창작곡을 위촉하는 등 창작곡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특히 부산의 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 작곡가들에게 곡을 의뢰하여 매년 3~5곡의 위촉곡들이 초연되었습니다. 제가 재임중이던 1998년에는 전국 시도립 단체 최초로 창작곡 음반을 출판하여 기념음악회를 가지기도 했죠. 지금까지 총 4개의 음반이 출판되었고 위촉곡들로 수록된 악보집도 현재 15집까지 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작곡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창작곡 발굴에 힘을 쏟은 것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만의 업적이라 여겨집니다.”

그가 이뤘던 성과들을 나열하자면 유독 최초라는 단어가 많이 따라붙는다. 부산의 진산(鎭山)이라 불리는 금정산 동문에서 최초로 열린 ‘환경사랑 금정산 산상음악회’(1997년 6월 22일)는 시민들에게 환경사랑, 국악사랑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으며, 1999년 제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한국영화 80년사를 시대별로 음악과 함께 재조명해보았던 ‘국악으로 빚어내는 한국 영화의 추억’(1999년 10월 12일~13일) 역시 영화도시 부산을 알리는 특별한 무대로 기억된다. 2000년 6월은 한반도가 분단된 후 두 당국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역사적인 남북회담이 열린 해로, 제99회 정기연주회 ‘남과 북 전통음악’(2000년 8월 28일)를 통해 남과 북의 음악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무대도 처음 마련했다.

부산문화회관의 브랜드 공연이었던 ‘토요상설무대’의 시작 역시 배양현 선생이 1990년 5월부터 국악과 제자들과 함께 진행했던 상설무대였다.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소극장 완공과 함께 1992년 3월부터 토요상설무대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은 물론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다. 자칫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고3수험생을 위한 해설

이 있는 국악감상 연주회’ 역시 배양현 선생이 처음 시도, 미래 관객이 될 청소년들에 우리국악의 멋과 신명을 알리기도 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배양현 선생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999년 12월 제11회 봉생문화상(공연전시 부문)을 수상했다.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문화소의 계층을 위해 관객들을 직접 찾아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찾아가는 시립예술단’은 창단 초기에는 ‘움직이는 예술단’으로 부산 곳곳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과거 피서철인 7월, 8월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광안리 해수욕장과 해운대 송림에서 야외공연을 펼쳤으며, 이밖에도 양정청소년회관, 구덕실내체육관, 북구 장선사회복지관, 다대현대아파트 등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들어가 국악의 멋과 신명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소규모 연주단이 움직이는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국악관현악단 전체가 나서 제대로 된 국악무대를 선사했다.

“시립예술단의 존재 의미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보다 더 많이 갖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공연 횟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불어 시대 상황에 맞춰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일례로 내년이면 지하철 시대가 시작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부산고 통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념사업을 진행하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듯 부산지역만의 특색을 바탕으로 부산의 역사와 연결하는 방향을 제시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배양현 선생은 재임시절인 2000년 11월 17일 100회 정기연주회 ‘백번째 아우름’를 통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거쳐간 역대 지휘자들과 기념연주회를 가졌다. 이후에도 창단 20주년 기념 ‘희상 1984 그리고 비상 2004’(2004년 5월 20일~21일), 창단 30주년 기념 ‘희망의 노래’(2014년 5월 23일) 등 창단 기념무대에 항상 참여하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40년 역사와 함께 걸어왔다. 선생은 올해 40주년 기념무대에서 사회를 맡아 창단 40주년의 기쁨을 시민과 나눈다.

“
40여년 산조와 호흡한
가야금 예인...
난 행복한 국악 연주자
”

올해 정년 맞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혜진 현악악장

박창희 경성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스토리랩 수작 대표



가야금 소리는 들을수록, 가까이 할수록 애뜻하고 오묘하다. 뗏잎에 이는 바람 소리같은, 꽃이 병글어지는듯, 달이 구름을 스치듯, 별빛이 내려앉듯 애절하게 가슴을 씻어내리는 선율. 밀고 달고 맺고 풀어 애간장을 녹이는 사랑. 대가야의 악성 우륵이 가야금을 창시하고 1500여 년간 한민족의 심금을 울린 까닭을 알겠다. 그 무엇도,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선율. 가야금에 취한 시인은 사무치듯 '산조'를 뜯는다. 시와 현(絃)이 어우러져 달빛이 되고 꽃이 된다.

‘소리를 찾으면 / 꽃이 핀다고 // 허튼 소리 / 흩어진 소리 / 밀고 달고 맺고 풀어 / 열 돌이 살아나면 / 꽃이 핀다고 // 달빛이 / 千江에 내려 / 千 개의 달이 뜨듯 // 별빛이 / 열 두 현에 내려 / 소리가 살아 나오면 // 꽃이 피려는지’

이청산 시인의 '산조'

4월의 한 중간, 달아나는 시간을 멈춰 세워 김혜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하 시립국악단) 현악악장(이하 악장)을 만났다. 그는 부산을 지켜온 가야금 예인이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보존회 회장이자 음악감독, 그리고 전승교육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강태홍류는 부산 특유의 가야금 산조 가락이다. 김혜진 악장은 신명숙(보유자)-백혜숙(전 부산대 교수)으로 이어지는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의 계보를 잇는 핵심 연주자다.

시립국악단에서 장장 39년간 가야금 연주활동을 해온 그는 올해 정년을 맞이한다. 가야금 연주 인생의 일대 전환점을 맞는 셈이다. 정년을 몇 개월 앞둔 그는 아쉬워하기는커녕 유쾌하게 새로운 가야금 연주 이모작을 꿈꾸고 있었다.

시립국악단에 들어온 게 언제였던가요?

1985년 9월에 입단했어요. 부산대 국악과 3학년 때였죠. 시립국악단이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으니까 창립한지 1년만이었죠. 처음에는 비상임으로 월급이 5만 원이었죠. 1988년 정식 단원이 되었고 월급이 39만 원으로쯤으로 기억됩니다.

창립 멤버 중 아직도 남은 단원이 있나요?

다 나가고 저 혼자 남았어요. 터줏대감이 된 셈이죠. 생각해 보면 시간이 쏠살같네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고맙죠. 다시 태어나도 시립국악단 멤버이고 싶은 걸요. 진심이에요.

언제, 어떤 계기로 가야금을 잡게 되었나요?

7세때 가야금은 취미로 처음 시작했어요. 옆집 언니 따라 배우러 다녔죠. 피아노를 치고 플루트를 분 것들 보면 제가 악기엔 관심이 좀 많았나 봐요.

가야금 연주인생의 변곡점이랄까, 기억해두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면?

1997년 3월부터 1년간 중국 연변에서 연수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4대 시립국악단 지휘자였었던 전 부산대 예술대학 학장 배양현 교수님의 도움이 컸어요. 연변에서 개량가



야금과 북한의 33현 옥류금을 처음 배우게 되었어요. 옥류금은 북한의 고 김정일 위원장이 좋아했다는 개량악기죠. 국내에 돌아와 25현 가야금을 연주하며 열심히 퍼뜨렸죠. 제자도 생기고 보람있는 일이었어요.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의 대가이신데, 그건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강태홍 선생님은 전라도 무안 출신으로 강태홍류는 절제, 무심, 자연의 소리를 추구해요. 엇박이 많고 조이고 푸는 맛이 특징이지요. 연주를 하다보면 흥겨움이 살아나고 입에 침이 고여요.

호산가야금연주단 단장도 맡고 있다죠?

네. 강태홍류 산조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 10월 창단한 국악연주단입니다. 전국 국악 축전 등에 참가했고, 2005년 부산 APEC 축하 기념공연도 했어요. 후배와 제자들의 교육, 소통 창구죠.

독주회도 많이 하셨죠.

기억에 남는 연주회는 어떤 게 있나요?

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외에 지금까지 일곱 번 독주회를 했어요. 독주회는 제 개인의 연습과 긴장을 갖기 위해 열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독주회는 2015년 9월 가진 '시와 현'이에요. 시의 감흥을 가야금 열두 줄 위에 얹어 선율로 표현했다고 할까요.

이 대목에서 김혜진 악장은 개인사를 슬쩍 소개했다. '시와 현' 가야금 독주회를 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바로 이청산 전 민예총 이사장이라는 것이다. 위에 소개한 '산조를 쓴 시인이 바로 그다. 현 위에서 시가 꽃 핀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은요?

강태홍류 산조를 계승 발전시키는 책임이 우선이고요, 국악 대중화를 위해 조기교육이 필요해요. 시 교육청 차원에서 초,중,고에 전수학교를 더 만들어야 해요.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가 말해주듯이 국악도 K팝 못지않은 글로벌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공연으로 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40년史

부산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

1973년 10월 1일 영남극장(토성동)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부산국악관현악단은 단장 조백진을 중심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초대 상임지휘자였던 이의경을 비롯하여 조창훈, 박정배, 이세환 등 국악사양성소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1973년 3월 1일 창단한 후 그 해 10월 1일, 영남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당시 국악관현악단의 출범은 무대예술로의 지향뿐 아니라 민속악 외에도 일반인들이 이전에는 접할 수 없었던 정악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부산국악관현악단은 이듬해인 1974년, 부산지역 22개교 학교 순회연주회와 부산민속예술관 개관기념 연주, 제1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전야국악제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활동을 펼쳐오다 제2회 정기연주회(1975년 8월 30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를 끝으로 해산하게 된다.

부산국악관현악단 재창단 공연

1979년 12월 7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1979년 5월 6일, 부산국악관현악단 창단 멤버였던 이의경이 주축이 되어 재창단한 부산국악관현악단은 그 해 12월 7일 재창단연주회를 열었다. 당시 단원 27명으로, 국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악과 출신 등 정규 교육 과정을 밟은 단원들 외에도 대다수 단원들이 오랜기간 연수해온 실력자라 수준급의 연주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단장이었던 이의경은 이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에 큰 역할을 했으며, 초대 상임지휘자(1984년 5월~1989년 12월)로 활동했다.

부산시립 국악 관현악단 창단 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

1984년 9월 2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1980년대에 들어 사회적으로 점차 '우리 것을 알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부산, 경남 지역의 유일한 고등 국악교육기관인 부산대학교 국악과(현 한국음악학과)가 1982년 설립되고 1984년 5월 23일, 드디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됐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은 지난 1965년 창단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현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다. 초대 상임지휘자로 이의경을 위촉하고 신입단원 오디션을 거쳐 24명의 비상임단원도 선발했다. 선발 당시 비상임이었던 단원들은 이듬해 상임으로 위촉됐다. 그 해 9월 21일 열린 창단 연주회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부 전통음악, 2부 창작음악으로 나뉘어 1부에서는 국악관현악 '평조회상' 중 '염불, 타령, 군악', 대금독주 '요천순일지곡', 시나위, 대취타를, 2부에서는 가야금협주(황병기 곡), 가야금협주곡 제1번(이강덕 곡), 만선(황의중 곡)을 연주했다. 특히 이날 초연된 '만선(滿船)'은 창단연주회 위촉곡으로, 그 해 대한민국 작곡상 국악부문에서 대상없는 우수상을 차지하여 더욱 더 화제가 됐다.

제5회 대한민국 국악제

1985년 4월 22일-2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1985년에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악축제인 '대한민국 국악제'가 부산에서 처음 열렸다. 4월 22일부터 닷새간 열린 이번 국악제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개막연주회에서 창단연주회 위촉곡이자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인 '만선'(황의종곡)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합동연주했으며, 이튿날인 24일에는 '전통기악과 판소리'라는 부제로 소리꾼 송순섭, 김소희, 조상현 등과 함께 무대에 섰다. 이날 대한민국 국악제는 침체되어 있는 부산 국악계에 새로운 국악 봄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6년 2월부터 국악강습회 실시

수강생들로 구성된 '어울림국악연구회' 탄생

1980년대 들어 국악을 배우려는 시민들이 크게 늘면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도 1986년부터 국악강습회를 열어오고 있다. 특히 단소반을 수료한 일부 수강생들이 우리 음악을 배우고 지키자는 취지로 창립한 '어울림국악연구회'는 1989년 첫 번째 정기연주회(10월 14일)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교류음악회, 초청연주회, 강습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악의 해'인 1994년 처음 마련된 '시민국악교실'은 부산대학교 국악과 교수들의 이론강좌와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수, 차석단원들의 실기강좌로 꾸며지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제1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87년 10월 26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차세대 국악계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발굴, 부산시립국악관현악과의 협연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은 1987년 첫 무대를 가진 후 지금까지도 실력있는 국악 전공자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국악심포지엄

'국악관현악 편성의 현재와 미래'

1988년 2월 26일 부산일보사 세미나실

부산음악계에서는 처음 열리는 음악관계 심포지엄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사)한국국악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부산일보사(釜山日報社) 후원으로 열렸다. 198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면서 국악의 연주형태가 관현악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악기의 편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학술적 연구가 병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심포지엄에 대한 국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화여대 조운조 교수가 '근대 창작국악관현악의 악기편성에 대한 고찰과 문제점', 서울대 이성천 교수가 '무대 예술로서의 국악관현악편성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후 질의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980



국립국악원 신축청사 개관기념 공연

1988년 3월 4일 국립국악원 소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 후 처음 갖는 서울 연주회로, 국립국악원(2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3일), KBS국악관현악단(5일) 등 국내의 대표적인 국악관현악단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날 무대에서는 '가야금협주곡 제1번'(황의중 곡), '합주곡 제3번'(김희조 곡)을 서울초연했으며, 이밖에 '만선'(황의중 곡),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이강덕 곡)을 연주했다.



한·일 친선연주회

1991년 5월 9일~10일 일본 후쿠오카

부산의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오카시 초청으로 창단 이후 첫 해외연주에 나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후쿠오카 플라자 호텔(5월 9일), 후쿠오카 솔라리아 백화점(5월 10일), 후쿠오카 은행 본점홀(5월 10일)에서 우리음악의 멋과 신명을 들려주며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듬해인 1992년 5월에도 시모노세키시 하관시민회관(5월 28일), 다이마루백화점(5월 29일), 북구주시민회관(5월 30일)에서 한·일 친선연주회를 가졌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후원회 창립

1991년, 1997년, 2016년, 2018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는 지금까지 네차례 결성되었다. 그 첫 번째가 1991년 6월 창립한 후원회로, 부산대학교 국악과 교수 전원을 비롯하여 기업인, 의사, 문화예술인 5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997년 10월 11일,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정익준 교수를 회장으로 부산 지역의 교수, 의사, 한의사, 기업체 대표 등 44명이 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2016년 10월 29일 세 번째 결성에 이어 2018년 7월 1일, 부산제2항운병원 황성한 원장을 회장으로 하는 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활동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토요상설무대

1992년~2016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국악과 전통무용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전통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1992년 3월 시작된 토요상설무대는 부산에서 처음 마련되는 국악과 한국무용의 정례무대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며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다.



창단 10주년 특별연주 '겨레의 신명'

1994년 4월 12일~1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문화회관 전관 개관 기념공연이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10주년 특별연주로 마련된 '겨레의 신명'에서는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과 국립국악원, 전북도립국악원, 대구시립국악관현악단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악관현악단이 출연, 국악관현악의 진수를 선사했다. 국악에서 처음 마련되는 국악관현악 축제인 만큼 우리나라 국악관현악의 최근 흐름과 수준을 서로 비교,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창단 10주년 기념공연

1994년 9월 7일~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984년 창단 당시 단원 24명으로 출발했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창단 10년만에 단원 70명의 명실상부한 부산의 시립국악관현악단으로 자리잡았다. 창단 10주년을 기념한 이번 무대에서는 초대지휘자 이의경을 비롯하여 2대 지휘자 김용만, 악장 박영안이 지휘, 집박을 맡아 정악에서부터 판소리, 사물놀이, 민요, 산조, 창작음악 등 국악의 전 장르에 걸쳐 우리 소리의 진수를 관객들에게 들려줬다.



중동·아프리카 5개국 순회연주회

1995년 9월 24일~10월 13일 중동·아프리카 5개국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선으로 오만, 요르단,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중동 및 아프리카 순회연주회를 펼쳤다. 이번 순회연주회에는 대금 수석 채수만을 비롯하여 단원 12명이 참여했으며, 오만 부스탄파라시호텔(9월 25일)을 시작으로 요르단 하산 대강당(9월 28일), 수단 프랜드쉽홀(10월 1일), 수단 국립극장(10월 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레이트홀(10월 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박스터콘서트홀(10월 6일), 케냐 국립극장(10월 9일-10일)에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1997 동아시아 경기대회 기념 '동아시아 음악제'

1997년 5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997년 5월 10일 막이 오르는 제2회 부산동아시아 경기대회를 기념한 특별무대로, 한국과 중국,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악기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그 나라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생황, 사쿠하치, 고토, 샤미센, 이호, 비파 등 각 국가를 대표하는 전통악기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협연곡을 비롯하여 한·중·일 민요연곡 연주를 통해 음악으로 하나되는 무대를 선사했다. 이밖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동아시아 경기대회 개막식과 폐막식 무대에 참가, 축제의 시작과 끝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음반 출판 기념연주회 '봄의 춤' [제84회 정기연주회]

1998년 3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국 시도립 단체로는 처음으로 음반을 출판했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무대로, 그동안 즐겨 연주한 레퍼토리인 '만산'(황의중 곡),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관현악(이상규 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신영순 곡)을 비롯하여 국립무용단의 무용곡 음악으로 발표된 '춘무'(박범훈 곡), 관현악과 가곡 '봄쳐녀, 그네'(백대웅 편곡) 등 음반에 수록된 다섯 곡을 선보였다. 이번 음반 제작은 지난해 결성된 국악관현악단 후원회의 회비와 기금 1천만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지금까지 4개의 음반이 제작되었다. 2집 음반은 이듬해인 1999년 출판되어 그 해 3월 23일, 제90회 정기연주회에서 '봄의 축제'라는 타이틀로 음반출판 기념무대를 가졌다.



2000년 12월에 출판된 3집 음반에는 정기연주회를 통해 발표된 위촉곡 중 호평을 받은 4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4집 음반은 창단 20주년이 되던 해인 2004년 8월에 출판됐는데, 창단 20주년을 기념한 위촉곡 5곡이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984년 창단 위촉작품 5곡으로 구성된 '한국음악창작곡집 제1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위촉곡들이 수록된 악보집을 제15집까지 발간한 바 있다.

제11회 봉생문화상 공연전시 부문 수상

1999년 12월 1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우리음악의 신명과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알려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11회 봉생문화상'을 수상했다. '봉생문화상'은 봉생문화재단이 부산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온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문학부문, 공연·전시부문, 언론·출판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해오고 있다.

중국 중앙방송민족악단 문화예술교류 기념연주회 [제98회 정기연주회]

2000년 7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중국 북경 중앙방송민족악단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무대로, 북경 중앙방송민족악단 수석지휘자인 팡가봉의 객원지휘로 열렸다. 이날 무대는 앞서 5월 22일 있었던 협정 체결 이후 열리는 첫 교류 연주회로, 9월(18일-25일)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중국 북경과 상해를 방문하여 중앙방송민족악단과 함께 순회연주를 가졌다.



남과 북의 전통음악 [제99회 정기연주회]

2000년 9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0년 6월은 한반도가 분단된 후 두 당국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역사적인 남북회담이 열린 해이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제99회 정기연주회에서 남과 북



의 음악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무대를 마련했다. 특히 50년 세월동안 다른 모습으로 전승되어 온 우리의 전통음악을 한 자리에서 감상하는 한편, 그동안 자주 접할 수 없었던 북한 악기인 옥류금과 북한의 신민요, 서도민요를 만날 수 있었다.

백번째 아우름 [제100회 정기연주회]

2000년 11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984년 창단한 후 16년만에 열리는 100번째 정기연주회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거쳐간 역대 지휘자들이 오랜만에 무대에 섰다. 당시 국악관현악단을 이끌고 있던 지휘자 배양현을 비롯하여 초대 지휘자 이의경, 3대 지휘자 김용만이 함께 축하무대를 꾸몄는데, 2대 지휘자였던 김영동은 외국 체류로 함께 하지 못했다.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홍보사절단

부산시립예술단은 2000년 들어서며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을 알리는 홍보사절단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부산아시아게임을 알리기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00년 9월 1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상하이, 베이징에서 우리 전통음악의 깊



은 멋을 전했으며, 이듬해인 2001년 10월 31일에는 인도 제일의 항구도시인 뭄바이(옛 봄베이)에서 부산아시아게임 홍보를 위한 한국전통예술의 전령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2002년 8월에는 싱가포르 국립아시아문화박물관 개관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국의 날’ 행사에 초대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전통가락을 소개하는 한편, 한달 앞으로 다가온 부산아시아게임을 홍보하는데 적극 앞장섰다.

제1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3년 9월 23일-2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을 창작국악의 본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로 기획된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는 창작국악관현악의 현주소를 확인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국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서울보다 비교적 늦게 창단되었지만 창



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회 정기연주회때마다 창작곡을 위촉, 연주하고 악보집과 음반을 출판함으로써 창작곡의 발전에 힘을 쏟아왔다. 제1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하여 국립국악관현악단, 전주시립국악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등 지역의 대표적인 국악관현악단이 출연하여 한국 창작국악관현악의 현재를 보여줬다. 제2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는 이듬해인 2004년 9월 15일부터 사흘간 경기도립국악단, 대구시립국악단,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2005년 9월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3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더불어 그 해 11월에 열리는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중국의 정상급 민족악단인 ‘중국광파민족악단’을 특별초청했다.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는 2008년 제6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까지 계속되며 전국 규모의 우리음악축제로 자리 잡았다.

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 ‘희상 1984 그리고 비상 2004’ [제119회 정기연주회]

2004년 5월 20일-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통음악을 이어받아 시대의 음악으로 만들자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노래해온 국악관현악단이 창단 20돌을 맞아 기념무대를 열었다. 첫날인 20일은 ‘희상 1984’, 그리고 21일은 ‘비상 2004’라는 주제로, 어제와 오늘의 지휘자, 단원들이 번갈아 무대에 섰다. 초대 수석지휘자 이익경, 4대 수석지휘자 배양현의 지휘로 열리는 ‘희상 1984’ 무대에서는 창단 위촉곡인 황의종의 ‘만산’을 비롯하여 지난 20년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곡들을 선정,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재현했다. ‘비상 2004’ 무대에는 제5대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박호성의 지휘로 창단 20돌을 맞아 새로 위촉한 곡들로 무대를 꾸미면서 어제와는 다른 지금의 음악을 들려줬다. ‘비상 2004’는 6월 11일 국립국악원 예약당 무대에 올려져 서울에서 다시 한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20돌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7월 14일 대전 평송수련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개원 23주년 기념 연주회에도 참가, 동일 레퍼토리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즐거워라 무릉도원**

2004년 11월 25일~29일(초연)

2005년 11월 4일~6일(재연)

2005년 APEC 정상 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기획한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으로, 부산시립예술단이 가·무·악·극을 하나의 종합예술로 꽃피운 최초의 무대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중심으로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했으며, 특히 국악을 바탕으로 한국적 정서가 담긴 소재를 녹여낸 창작공연이라는 점에서 부산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다. ‘느낌, 극락같은, 북어 대가리’ 등으로 알려진 작가 이강백이 대본을, 작곡가 황의중이 작곡을, 부산시립예술단의 수석 연출가, 안무가가 각각 연출, 지휘, 안무를 맡았으며, 영화 ‘서편제’의 주연배우인 소리꾼 오정해와 당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단원이었던 박성희가 주역인 주홍란을 맡아 열연하였다. 이듬해인 2005년에는 전 4막이었던 작품 구성을 16장으로 재편성, 무대 장치를 다양화하고 초연 때 없던 뱃사공을 등장시키는 등 작품의 구성을 한층 더 다듬어 재연무대를 가졌다.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06’** [제131회 정기연주회]

2006년 6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국악선율로 전하는 환경생태음악회로, 2006년 첫 무대 이후 2013년까지 모두 6차례 열렸다. 세 번째 무대인 ‘상생 2008’부터는 환경이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상징적 장소인 을숙도에 자리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열려



무대인 ‘상생 2012’에서는 프로그램을 모두 부산초연곡으로 꾸몄다.

팔빙수 같은 시원한 음악회

2006년 8월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시원한 팔빙수가 그리워지는 여름, 흥겨운 우리 국악으로 여름 더위를 씻어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재미있고 시원한 국악여행으로, 2006년 첫 무대를 가진 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의 브랜드 공연이다. 첫 해에는 줄타기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한 아름답산이(줄광대) 권원태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공연과 미술개그, 가수 김수희의 무대 등 대중적인 무대로 채워졌는데, 이후에도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공연 초창기에는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시원한 팔빙수를 제공하여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월빙콘서트

2007년 3월 16일, 6월 8일, 10월 5일

2008년 3월 6일, 5월 8일, 11월 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한낮의 여유로움을 선사하는 고품격 브런치 콘서트로, 전통 국악 이외에도 대중에게 친근한 프로그램으로 가깝게 다가가면서 국악의 향유층 확대에 큰 몫을 하였다. 가수 심수봉, 명창 김영임, 개그맨 이홍렬, 가수 전영록, 동부민요 명창 박수관과 가수 김태곤, 가수 최진희 등 주 관객층이라 할 수 있는 주부들이 좋아하는 출연진들이 차례로 등장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웰빙콘서트는 16년 만인 올해 2월 27일, '국악살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와 바리스타 전주연, BS오페라단 싱어즈, 싱어송라이터 최성수 등이 출연, 커피 한잔과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2007 신춘음악회 'B-boy와 함께 하는 韓流콘서트_通' [제134회 정기연주회]

2007년 3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국악과 B-boy가 만났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날 무대에서 한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B-boy 드리프트즈 크루와 우리의 전통 B-boy라 할 수 있는 풍물의 버숨새예술단이 만나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후에도 매년 봄, 신춘음악회를 통해 실험성이 강한 색다른 무대를 선보여 왔는데, 2008년에는 대표적인 년별 퍼포먼스 뮤지컬인 '점프'의 하이라이트를 국악 선율에 담았으며, 2009년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서커스단인 동춘서커스가 무대에 선 바 있다.

부산국제민족음악축제

2008년 9월 23일~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무대로, 세계 민족음악의 교류와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날 무대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교류해온 중국광파민족악단과 몽골 민족의 문화와 예술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는

몽골국립민속관현악단, 그리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출연하여 나라별로 서로 다른 빛깔의 음악을 들려줬다.

위촉작품 명곡전 '창단부터 오늘까지'

[제154회 정기연주회]

2010년 11월 1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창단부터 지금까지의 자취를 창작곡으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1984년 창단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역사를 작품으로 접할 수 있었다. 창단공연 위촉곡이었던 '청사포 아침해'(김기수 곡)를 시작으로 클라리넷 협주곡 '부림'(신영순 곡, 1997년), '축제의 향연'(김선 곡, 2005년), '이렇게 슬픈 날에는'(황의종 곡, 2010년), '우삭도'(강봉천 곡, 2010년)를 들려줬다.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꽃

2011년 10월 13일~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초연]

2013년 4월 25일~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재연]

'즐거워라 무릉도원'에 이은 부산시립예술단의 두 번째 합동공연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하여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극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시립예술단 5개 단체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와 음악학과 재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출연진만 200여 명에 달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처한 현실과 부산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동래읍성 주민들의 구국의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승화시



킨 대작으로, '동래성 전투' 당시의 상황을 극작가 백훈기가 대본으로 옮기고 작곡가 강봉천이 웅장한 칸타타로 생명을 불어넣었다. 예술 총감독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철호 수석지휘자가 맡고 국립극단의 이병훈 상임연주가 총연출, 부산시립무용단 홍기태 안무자가 안무를 맡았으며, 무대를 이끌어갈 송상현 부사 역에는 바리톤 박대용이 캐스팅되었다. 2년 뒤인 2013년 4월 열린 재연 무대에서는 초연 당시 선보인 대본과 음악에 드라마틱한 구성과 웅장한 음악을 더해 초연 당시 1시간 10분이었던 공연 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늘어났다.

독일 순회연주회

2013년 6월 독일 뒤셀도르프, 함부르크

외교통상부가 주최한 한·독 수교 130주년 및 파독 광부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 공연단 해외파견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 6월 9일 독일 연주길에 오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독일 뒤셀도르프 로버트 슈만홀(11일), 함부르크 콩그레스 센터(15일)에서 두차례 공연을 가졌으며, 보훔대학(12일)과 한인교회(16일)에서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우리음악, 우리악기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교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독일 순회연주회에 앞서 5월 29일에는 한·독 수교 130주년 기념공연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가진 바 있다. 한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듬해 해외파견 공모에서도 또다시 선정되어 2015년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연주회'(5월 20일-21일)에 참가, 품격있는 우리음악을 연주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합동 신년음악회 '함께 여는 새해'

2014년 1월 21일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부산국악원의 첫 합동무대로, 전통음악의 산실인 국립부산국악원과 창작, 근·현대 작품 연주가 장기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음악적 색깔을 무대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2004 신년음악회에 이어 그 해 12월 23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송년무대에서도 두 단체의 합동무대가 펼쳐져 국악애호가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후에도 '2015 신년음악회'(1월 15일, 국립부산국악원), '2016 합동 신춘음악회'(3월 3일, 국립부산국악원), '2017 신춘음악회'(3월 2일, 부산문화회관)를 통해 합동무대를 꾸준히 가져왔다.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희망의 노래'

[제172회 정기연주회]

2014년 5월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창단 30주년을 맞아 역대 지휘자와 단원들을 초빙, 국악관현악단의 30년 역사를 되돌아본 무대로, 초대지휘자 이의경부터 2대 지휘자 김영동, 4대 지휘자 배양현, 5대·6대 지휘자 박호성, 그리고 7대 지휘자 김철호까지 역대 지휘자 5명이 무대에서 창단의 의미를 되새겼다.(3대 지휘자 김용만 별세). 특히 이날 무대는 부산예술대학교 강열우 교수가 연출을, 국립창극단 단원 박애리가 사회를 맡아 무대의 풍성함을 더했다.



원아시아 페스티벌 축하공연 아시아 민족 음악의 밤

2016년 10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6년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한류를 연계시켜 부산과 세계의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아시아 대표 문화콘서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첫 발을 내딛은 해이다. K-POP 콘서트를 중심으로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장르의 한류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고 있다. '아시아 민족 음악의 밤'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

2020

넘하기 위해 마련한 무대로,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마카오의 민족음악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가 민족음악으로 하나되는 뜻깊은 무대를 펼쳤다. 매년 색다른 아시아 각국의 전통 음악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2018년까지 계속됐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지휘자 진성수가 10월 31일과 12월 24일 각각 무대를 펼친 결과 김종욱 지휘자가 제9대 수석지휘자로 선정됐다.



신춘음악회 '봄의 소리' [제200회 정기연주회]

2019년 3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난 25년간 전통음악 계승 및 창작음악 개발에 앞장서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200회 정기연주회를 기념하는 무대이자 '2019 신춘음악회'로, 부산시립무용단 출신의 허경미의 춤사위로 풀어낸 '춘무'(박범훈 곡)에서부터 국악계의 아이돌 스타 송소희가 부르는 경기민요 '매화타령, 태평가, 경북공타령'까지 흥겨운 무대로 200회를 축하했다.

2020 경자년 신년다례연

2020년 2월 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새로운 예술감독으로 추계예술대학교 김정수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기존 예술감독은 수석지휘자가 겸임했으나 이번 수석지휘자 선정과정에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예술감독과 지휘자의 이원 체제를 권고하면서 지난해 5월, 김정수 예술감독이 취임하게 됐다. 부산 출신의 김정수 예술감독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을 역임했고,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이자 창작 한국음악을 이끈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정수 예술감독의 첫 무대이기도 한 '2020 경자년 신년다례연(新年茶禮宴)'은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인 다례와 만난 특별한 무대로, 깊고 은은한 다향과도 같은 품격 높은 무대를 선사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수석지휘자 선정음악회

2019년 8월 22일, 10월 31일, 12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석이던 수석지휘자 선정을 두고 공채로 진행했던 예전 방식과 달리 전문가 추천제가 도입되면서 3명의 후보가 수석지휘자 자리를 놓고 경연을 펼치게 되었다. 8월 22일 월드뮤직 오케스트라10 대표 겸 지휘자이자 한음오케스트라 지휘자 김종욱을 시작으로 전 중앙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박상후와 전

명품 재창작 관현악

2020년 7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특별연주회]

2021년 3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제200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지난 30여 년 간 위촉한 창작관현악곡 중에서도 음악적 완성도가 뛰어나고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곡들을 엄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창작관현악곡으로 선보여 당시 많은 화제를 낳았다.



종류_명가·명창·명무의 무대

2020년 10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특별연주회]

2021년 10월 2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제212회 정기연주회]

최고의 열정, 예술혼으로 일가를 이룬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무대로, 2020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예능보유자 이준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춤예능보유자 김진홍, 부산가야금연주단 단장 김남순, 국가무형문화재 제83-1 전수교육조교 장명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장구 예능보유자 박종환이 관객과 만났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박성희·정선희(판소리), 송영남·하지희(가야금), 김경수(태평소) 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배출한 대통령상 수상자 5명이 출연, 부산이 자랑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역량과 예술적 품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주곡의 밤

2021년 4월 22일~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특별한 무대로, 이 시대 해금과 가야금을 대표하는 젊은 국악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첫날인 22일에는 해금주자 서은영, 안은경, 김준희, 윤해승, 둘째날인 23일에는 가야금주자 곽수은, 오해향, 윤경선, 최미란 등 전국의 내노라하는 연주자들이 협연자로 출연, 각자 자신의 색깔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창작곡으로 관객과 만났으며, 특히 작곡가 이기녕, 이복남의 창작위촉곡 초연무대도 함께 펼쳐졌다.



스타프로젝트 '그대를 그리웁다'

2021년 7월 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기량이 뛰어난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과 부산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예술단의 5개 상임단체가 각 예술단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기획 콘텐츠를 선보였다. 스타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인공이었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손한별(대금), 송다솔(거문고), 최정욱(타악), 박성희(소리), 전현진(거문고) 등 국악관현악단이 자랑하는 다섯 연주자와 unit 'BMTO'(대금 안현영, 거문고 주윤정, 가야금 하지희, 해금 강민정, 피아노 김보은)가 직접 음악감독을 맡아 극을 구성하고 창작한 음악,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국악칸타타 '일향악 세계기' [제216회 정기연주회]

2022년 7월 7일~8일(*7일 초청공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무대로, 원래는 2021년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바 있다.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해온 시



인 이청산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고자 ‘만파식적’을 찾아 노랫말을 지었으며, 서양음악 작곡가이지만 우리만의 감성을 자극하는 작곡가 김은혜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위촉으로 작곡을 맡아 전통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김해시립합창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부산시립무용단, 그리고 정선희(여창), 최용석(남창), 김유섭(소프라노), 이희상(카운터테너), 강경원(바리톤) 등 정상급의 소리꾼과 성악가들이 출연,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는 웅장한 무대로 관객들과 만났다. 제목인 ‘일향악 세계기’는 ‘하나의 소리가 세계를 일으킨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

2022년 8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 열린 아창제로, 국악애호가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직접 뽑은 작곡가 김현섭 곡 ‘향비파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천장고임_학을 탄 선인’을 비롯해 아창제 선정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했다. ‘아창제’는 대한민국 창작음악의 명맥을 이어온 ‘아르코한국창작음악제’를 줄인 말로, 지난 2007년 첫발을 내딛은 후 특히 서양 고전음악 일색이던 한국음악 시장에 작곡가와 지휘자, 연주자들이 창작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발굴, 지원해오면서 한국 창작관현악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예술감독 이동은 취임연주회 ‘新, 念願(염원)’

[제220회 정기연주회]

2023년 7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난 8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예술감독에 새롭게 취임한 이동

훈 지휘자의 취임을 축하하는 특별한 무대로, 국악관현악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부산관객들과 정식 인사를 나눴다. 특히 색소포니스트 이정식, 인생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이 특별출연하면서 무대의 의미와 감동, 재미를 다 잡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위대한 유산

2023년 10월 10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023년 개관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민회관은 현존하는 전국 공공 문예회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2022년에는 부산시가 선정한 ‘부산 미래유산’에 지정되기도 했다. 개관일인 10월 10일 열린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공연 ‘위대한 유산’에서는 부산시민회관처럼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희노애락을 표현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악 무대로 개관 50주년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부지휘자 김경수 취임연주회 ‘내일’

[제224회 정기연주회]

2024년 3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 수석을 역임했던 김경수 신임 부지휘자의 취임연주회로, 국악관현악에서부터 판소리와 래퍼, 로커와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동래학춤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등 보다 국악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신선한 기획으로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위트레흐트의 티볼리브레덴부르크

Tivolivredenburg

•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티볼리브레덴부르크(TivoliVredenburg)는 네덜란드의 아름다운 운하 도시 위트레흐트(Utrecht)에 위치한 현대 음악단지이다. 마치 멀티플렉스 영화관처럼 건물 내부에는 특정 음악 장르에 맞춰 음향적으로 설계된 5개의 홀로 구성되어 있다.

위트레흐트는 약 3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대학교인 위트레흐트 대학교가 있는 젊은 도시이기도 하며, 지리적으로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네덜란드 최대 도시 암스테르담에 이어 문화 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4세기에 지어진 높이 112미터의 돔 타워(Domtoren)가 티볼리브레덴부르크와 함께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 면적이 넓지 않지만, 네덜란드는 도시마다 개성 넘치는, 그리고 음향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공연장들이 주요 도시 곳곳에 있다. 먼저 암스테르담(Amsterdam)의 콘서트트헤보우(Concertgebouw)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향악단 RCO 로열 콘서트트헤보우 오케스트라가 상주해 있다. 두 번째로 큰 도시 로테르담(Rotterdam)에는 드 들렌(De Doelen)이라는 공연장이 있으며, 우리가 헤이그라고 알고 있는 덴 하그(Den Haag)에는 아마레(AMARE)라는 복합 공연장이 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위트레흐트의 티볼리브



1, 2 티볼리브레덴부르크

레덴부르크 역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공연장이다. 이름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성격을 달리하던 두 개의 공연장이 합쳐져서 명명되었기 때문이다.

티볼리브레덴부르크는 위트레흐트 시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인 CU2030의 일부였다. 건축 디자이너 헤어만 허스베르거(Herman Hertzberger)는 티볼리 아우데그라흐트(Tivoli Oudegracht)와 뮤직센터 브레덴부르크(Muziekcentrum Vredenburg)의 분위기를 결합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디자인 작업은 2005년 동료 건축가인 조 코넨(Jo Coenen)과 티이스 아셀베르그(Thijs Asselbergs)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모든 계획은 2010년에 시의 승인을 받았고, 새로운 음악 공연장을 마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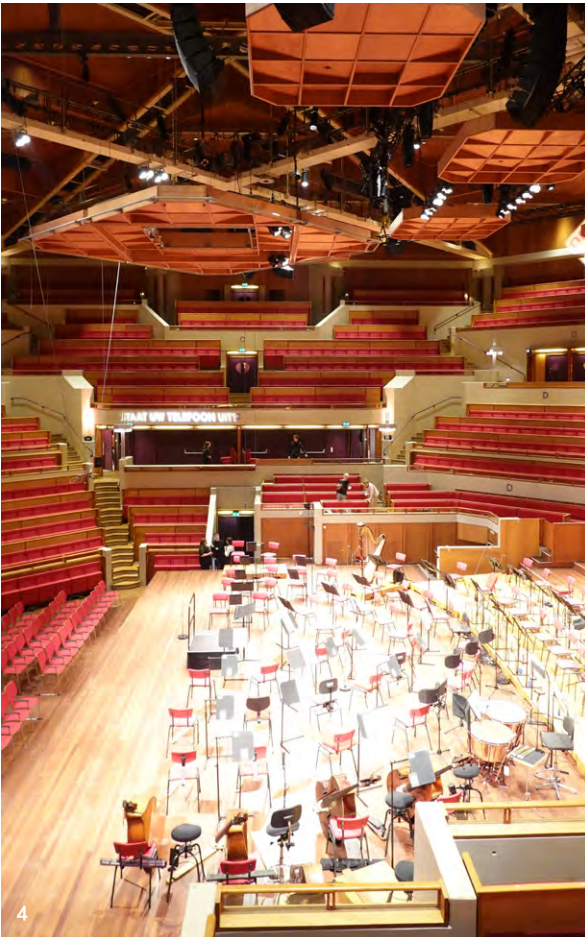




3

3 그로트 잘에서 열린 라디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

4 그로트 잘(Grote Zaal) 내부



4

기 위해 기존 뮤직센터 브레덴부르크(Muziekcentrum Vredenburg)는 2011년에 철거되었다.

원래 티볼리 아우데그라흐트는 대중 음악 공연장이었다.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조직은 18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도시 슈타츠부이텐그라흐트(Stadsbuitengracht) 외곽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처음 티볼리 아우데그라흐트는 현재의 장소인 티볼리브레덴부르크와 티볼리 드 헬링(Tivoli De Helling)의 두 곳이 있었다. 드 헬링은 지금의 티볼리브레덴부르크에서 도보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아우데그라흐트에 위치해 있다. 이 두 공간 티볼리 아우데그라흐트와 뮤직센터 브레덴부르크가 2014년 새로운 티볼리브레덴부르크로 합쳐지게 된다.

네덜란드어로 언덕이라는 의미의 드 헬링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었으며, 아우데그라흐트는 약 1,000명

을 수용할 수 있었다. 과거 네덜란드의 주요 공연장 중 하나였던 파라디소(Paardiso)와 함께 티볼리 아우데그라흐트는 위트레흐트 도심의 역사적인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300회 이상의 공연을 선보였다. 주로 팝 콘서트가 개최되었고, 수년 동안 여름 페스티벌의 주요 콘서트 장소이기도 했다. 2014년 5월 티볼리브레덴부르크가 개관하면서 기존의 티볼리 아우데그라흐트는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티볼리드 헬링은 독립 음악 공연장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티볼리브레덴부르크에는 5개의 공연장을 포함 7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첫 번째인 그로트잘(Grote Zaal)은 그레이트 홀이라는 뜻으로 신축 건물이지만 1970년 설계 당시가 그대로 복원되어 탁월한 음향을 보존하고 있다. 건물 내 두 번째 공연장인 룬다(Ronda)는 스탠딩으로 최대 2,000명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홀의 어느 곳에서나 무대와 아티스트가 가깝기 때문에 친밀한 느낌을 주며, 건물의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어 멋진 전망과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세 번째 공연장인 판도라(Pandora)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 처럼,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다목적이고 기능적으로 유연한 홀이다. 네 번째 공연장인 헤르츠(Hertz)는 넓고 반원형이며 좌석이 있는 홀이다. 내부 어느 곳에서나 무대와 아티스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원목 인테리어와 편안한 좌석이 따뜻하고 친근한 실내악이나 앙상블 연주를 할 수 있는 작은 콘서트홀이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나인(Cloud Nine)이 있다. 이 홀은 원래 재즈 홀로 설계되었지만, 단순한 재즈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고정된 무대와 넓은 발코니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좌석은 스탠딩석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도 클럽 나인(Club Nine)과 라보 오픈 스테이지(Rabo Open Stage) 두 공간이 건물 라운지 내 위치하고 있어서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

티볼리브레덴부르크의 첫 번째 콘서트는 2014년 4월 5일 판도라 홀에서 열렸으며 개막 공연에는 네덜란드 국왕인 빌렘 알렉산더 왕이 방문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이 글을 쓰기 2주 전, 마침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Radio Filharmonisch Orkest)의 연주가 있어서 위트레흐트를 찾을 수 있었다. 매번 올 때마다 지나치기만 했는데 이번엔 작정하고 공연 날짜에 맞추어 방문하였고, 기왕이면 그로트잘에서 교향악단을 만나고 싶었는데, 계획대로 되었다. 프로그램은 바그너와 말러에 이어 메인으로 멘델스존 3번 교향곡 '스코틀랜드'를 들을 수 있었다. 빈야드 형식의 객석 구조를 가지고 있어 1,700석 적지않은 규모지만 어느 좌석에 앉아도 무대와 가깝게 느껴졌으며, 오케스트라가 들려준 음향도 손색 없었다.

하나의 건물에서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인 그로트 잘, 스탠딩 석의 대규모 공연장 룬다, 가변형 공연장 판도라, 재즈에 특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나인, 그리고 실내악이 열릴 수 있는 헤르츠까지 다 만날 수 있는 티볼리브레덴부르크, 한번쯤 시도해 볼만한 상상력으로 만든 유니크한 복합 공연단지이다. 실제 방문한 날도 오케스트라와 재즈, 그리고 팝 콘서트가 동시에 열려서 공연장이 붐비었는데, 다양한 요구와 세대가 한 자리에서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5 티볼리브레덴부르크의 로비

유니버설 발레단, 한국 발레의 도약을 견인한 40년



•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유니버설 발레단(UBC)은 1984년 발레리나 문훈숙과 ABT(아메리칸 발레 씨어터) 수석무용수 패트릭 비셀을 주역으로 내세운 창단 공연 <신데렐라>로 출발을 알렸다. 당시 <신데렐라> 공연의 완성도나 화려함은 그동안 한국 발레계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문훈숙 이사장 ©유니버설발레단

UBC의 창단은 한국문화재단이 1962년 설립한 리틀엔젤스 예술단에서 움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초·중등 어린이 단원들이 해외에서 한국무용과 합창을 보여주는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활동이 이어지면서 단원들이 진학할 수 있는 예술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1974년 선화예중, 1977년 선화예고가 문을 열면서 발레부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리고 선화예중·예고 발레부를 토대로 UBC가 태어나게 됐다.

국내 최초 민간 직업발레단인 UBC는 창단과 함께 바로 국립발레단의 라이벌이 됐다. 국립발레단은 1962년 국내 최초의 공공발레단이자 직업발레단으로 출발했지만, 발레에 대한 문화부의 이해부족과 예산부족 등으로 더딘 발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UBC의 창단은 '발레 불모

지'이던 국내 발레계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국립발레단에 자극이 됐다.

예를 들어 국립발레단은 1977년 <호두까기 인형>을 전막으로 처음 올린 뒤 격년에 한 번꼴로 5월에 공연을 올렸다. 그러다가 유니버설 발레단이 1986년 <호두까기 인형>을 12월에 전막으로 올리자 국립발레단도 경쟁하듯 12월에 올렸다. 당시 발레계는 “이제 우리도 해외처럼 크리스마스에 <호두까기 인형> 공연한다”며 감격해 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필수 레퍼토리가 된 <호두까기 인형>을 필두로 두 발레단의 선의의 경쟁 구도 속에 발레는 점차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됐다.

무엇보다 UBC가 한국 발레계에 끼친 영향은 레퍼토리의 확장이다. 미국 출신의 초대 예술감독 애드리언 델라스를 비롯해 뉴욕시티발레단 수석무용수 출신의 로이 토비아스, 러시아 키로프 발레단(지금의 마린스키 발레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올레그 비노그라도프에 이르기까지 국제 수준의 안무가들을 영입해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다. 물론 여기에는 발레단 초창기에 간판 무용수로 활약하다가 1995년 단장에 취임해 30년째 UBC를 이끄는 문훈숙 단장의 역할이 컸다. 애드리언 델라스는 1976년 선화예고 발레 교사로 취임해 국내 최초로 러시아 바가노바 교육 시스템으로 9년간 학생들을 훈련해 UBC의 토대를 마련한 주역이다. 문훈숙 UBC 단장을 비롯해 서울발레시어터 초대 단장 김인희, 재독 안무가 허용순 등이 그의 제자들이다. 1984년~1987년 UBC 초대

단장으로 취임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 텔라스는 일찌감치 해외 진출을 겨냥해 한국적인 창작발레 제작에 나섰다. 바로 한국 창작발레를 대표하는 <심청>이다. <심청>은 음악평론가 겸 작가 고(故) 박용구의 대본을 토대로 애드리언 텔라스 안무와 작곡가 케빈 바버 피카드 음악으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문화축전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심청>은 UBC의 해외 공연에서 필수적인 레퍼토리가 됐다. 이런 성과 때문에 박용구는 국립발레단을 30년간 이끈 임성남이 한국 발레의 대부라면, 애드리언 텔라스는 한국 발레의 대모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1988년~1995년 예술감독을 맡은 로이 토비아스는 재임 중 무려 20편이 넘는 신작을 선보였다. 20세기 발레의 혁신가 조지 발란신이 이끄는 뉴욕시티발레단에서 활동한 만큼 로이 토비아스는 모던발레에서 장기를 발휘했다. 그의 작품이 지금은 자주 공연되지는 않지만, UBC를 통해 한국 모던발레의 초석을 놓은 것은 분명하다. 꾸준히 모던발레를 선보여 온 UBC는 2011년부터 <디스 이즈 모던>이란 타이틀로 브랜드화시켰다.

UBC는 1992년 올레그 비노그라도프를 영입하면서 활발해진 키로프 발레단과의 교류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에 나섰다. 올레그 비노그라도프는 1990년 유니버설발레단이 미국에 설립한 워싱턴 키로프 발레아카데미의 창립 예술감독에 위촉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는 1992년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백조의 호수>를 시작으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라 바야데르> <돈키호테> <지젤> 등을 재안무했다. 이들 작품은 UBC의 대표 레퍼토리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UBC 예술감독을 역임한 그는 안무 외에 키로프 발레단 발레마스터 네프 예브게니를 영입해 단원들의 예술적 수준을 높이는데도 기여했다. 참고로 국립발레단은 2000년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예술감독 출신인 유리 그리고로비치를 초청해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스파르타쿠스>



1 White Sleep ©유니버설발레단

2 애드리언 텔라스 선화 발레부 ©유니버설발레단

등의 레퍼토리를 만들었다. 한국의 양대 발레단이 각각 러시아의 양대 발레단의 전통을 잇게 된 것이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유병헌은 중국 국립발레단 발레마스터 출신으로 UBC 최초의 동양인 예술감독이다. 1999년 UBC 발레마스터로 부임한 후 부예술감독을 거쳐 예술감독이 된 그는 기존의 발레 레퍼토리를 요즘 관객의 감각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발레단의 고유 레퍼토리 확보에 이바지했다. 대표작 <춘향>을 비롯해 <코리아 이모션 정(情)> <더 발레리나>는 UBC의 창작발레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다.

UBC가 발레계에 기여한 또 다른 점은 활발한 해외 공연을 통해 한국 발레를 해외에 알렸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25개국에서 공연을 선보인 UBC는 한국 발레 최초로 개런티를 받고 해외공연을 하는 발레단이 됐다. UBC는 지난해엔 수석무용수 강미선이 무용계 최고 권위의 '브누아 드 라당스(Benois de la Danse)'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한국인 무용수로는 다섯 번째지만 <코리아 이모션 정(情)>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미리내길'로 수상함으로써 고전 발레가 아닌 순수 한국 창작발레로 처음 수상하는 기록을 남겼다.

UBC는 올해 창단 40주년 기념 라인업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10일~12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케네스 맥밀런 안무 <로미오와 줄리엣>을 8년 만에 공연한다. 한국에서 영국 출신의 거장 안무가 케네스 맥밀런의 작품에 대한 공연권을 얻은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이었다. 세계적인 명작을 UBC가 오랜 만에 선보인다는 점에서 발레 팬들에겐 놓칠 수 없는 무대다.

SUN	MON	TUE	WED
<p>예매</p> <p>부산문화회관이 보다 더 나은 시설로 관객과 만나기 위해 무대/시설 점검 및 개선 공사로 공연장별 휴관에 들어갑니다.</p> <p>·챔버홀: 2월~8월 ·사랑채극장: 1월~6월</p>	<p>전시실</p> <p>부산공업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동문문화제 5월 8일(수)-5월 12일(일) ※문의: 개교 100주년 조직위원회 동문문화제분과위원회 853-3823</p> <p>2024 제21회 한국추사서화예술 전국공모대전 5월 17일(금)-5월 18일(토) ※문의: 한국추사서예가협회 632-7077</p>		
<p>5</p> <p>슈퍼히어로와 함께 하는 어린이날 영화음악 콘서트 15:00, 18:00 대 10만원·8만원·6만원(36개월 이상 관람) 아트인뮤직(02-525-4420) 제20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 안무가 육성 경연' 18:00 중 (사)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p>	<p>6</p>	<p>7</p> <p>일리아 라쉬코프스키 피아노 콘체르토 19:30 대 11만원·9만원·6만원·4만원 두남재ENT(주)(02-6292-9368, 9370)</p>	<p>8</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리사이틀' 19:30 대 10만원·8만원·6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3113, 3115)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 마리오네트 인형과 함께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607-3113, 3115)</p>
<p>12</p> <p>2024 제4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대 부산MBC(760-1125) 2024 제4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대 부산MBC(760-1125)</p>	<p>13</p>	<p>14</p> <p>2024 제4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중 부산MBC(760-1125)</p>	<p>15</p> <p>2024 제4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중 부산MBC(760-1125)</p>
<p>19</p> <p>2024 제4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대 부산MBC(760-1125) 2024 제4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중 부산MBC(760-1125)</p>	<p>20</p>	<p>21</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24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4 제4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중 부산MBC(760-1125)</p>	<p>22</p> <p>2024 부산오페라시즌 프 19:30 대 부산광역시 문화시설 2024 제4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중 부산MBC(760-1125)</p>
<p>26</p> <p>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가족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17:00 중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070-7787-3086)</p>	<p>27</p>	<p>28</p> <p>2024 제38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음악회' 19:30 중 (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29</p> <p>제9회 더뉴앙상블 정기연주회 중 더뉴앙상블(988-3088)</p>

ED	THU	FRI	SAT
1	2	3	4
<p>부산시립합창단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19:30</p> <p>대 2만원-1만원(36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합창단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11:00, 15:00</p> <p>대 2만원-1만원(36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합창단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19:30</p> <p>대 2만원-1만원(36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2024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II-최재천' 15:00</p> <p>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합창단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19:30</p> <p>대 2만원-1만원(36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2024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II-최재천' 15:00</p> <p>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3	9	10	11
<p>합창곡연 '마이스키 트리오'</p> <p>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예술교육공연 '영도 할매 떠나는 국악사계' 10:30</p> <p>예술단 공연사업팀</p>	<p>부산공업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음악회 창작칸타타 '용광로 100년 환상곡' 19:30</p> <p>대 초대/부산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853-3823)</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교육공연 '영도 할매 마리오네트 인형과 함께 떠나는 국악사계' 10:30</p> <p>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3, 3115)</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우리 아이 음악회' 19:30</p> <p>대 전석 1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미술관 옆 콘서트홀 I '숲의 정령' 19:30</p> <p>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4 제4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p> <p>대 부산MBC(760-1125)</p> <p>2024 제4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p> <p>중 부산MBC(760-1125)</p>
5	16	17	18
<p>부산시립무용단 제89회 정기공연 '빙빙 Being Being' 19:30</p> <p>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4 제4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p> <p>중 부산MBC(760-1125)</p>	<p>부산시립무용단 제89회 정기공연 '빙빙 Being Being' 19:30</p> <p>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미술관 옆 콘서트홀 I '숲의 정령' 19:30</p> <p>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무용단 제89회 정기공연 '빙빙 Being Being' 15:00</p> <p>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III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7:00</p> <p>중 3만원-2만원(5세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12	23	24	25
<p>리뷰 '오페라 갈라 콘서트'</p> <p>개관준비과(888-5724)</p> <p>콩쿠르 예선 09:00</p> <p>(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40주년 기념 제225회 정기연주회 '불혹의 나이, 100년을 꿈꾸며...' 19:30</p> <p>대 무료(1인 4매에 한해 사전 예약)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4 제4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p> <p>중 부산MBC(760-1125)</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실내악시리즈III '줌인1(Zoom-in 1)' 19:30</p> <p>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3회 정기연주회 합창 음악극 '엄마, 같이 걸을까' 17:00</p> <p>대 전석 3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한국예술가곡협회 제2회 정기연주회 한국예술가곡의 재발견! '우리가곡의 향기' 17:00</p> <p>중 전석 2만원/(사)이지무스오페라단(010-9550-4649)</p>
19	30	31	
<p>연주회 19:30</p> <p>(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
<p>전시실</p> <p>제26회 한국해석회 회원전 4월 30일(화)-5월 5일(일)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1·2</p> <p>제38회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사진공모전' 5월 7일(화)-5월 11일(토)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1</p>	<p>노마 개인전 5월 14일(화)-5월 26일(일)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1·2 *월요일 휴관</p> <p>(사)창조미술협회 전국회원전 5월 28일(화)-6월 2일(일)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1·2</p> <p>· 문의: 부산시민회관 630-5200</p>		<p>1</p> <p>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 '영화음악이야기-부산이 10:00 대) 전문화유목집단 동행 부산시립예술단 토크오페 소) 전석 1만원/부산시립 (607-3113, 3115)</p>
<p>5</p> <p>제38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무용예술제' 19:30 대) (사)부산무용협회(010-2482-3041)</p>	<p>6</p>	<p>7</p>	<p>8</p> <p>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 '어릴적에·황소가 된 게 소) 극단 오오씨어더(010</p>
<p>12</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가족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11:00, 15:00 대) 5만5천원·4만4천원·2만2천원(24개월 이상 관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3</p>	<p>14</p> <p>❖ 부산시민회관 토크 콘서트 '살롱 드 국악-김준수' 19:00 소) 전석 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5</p>
<p>19</p>	<p>20</p>	<p>21</p> <p>부산시립극단 예술교육공연 '음악극 나혜석' 10:30, 14:0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15)</p>	<p>22</p> <p>부산시립극단 예술교육공 10:30, 14:0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p>
<p>26</p> <p>부산국제연극제 초청공연 '시추(Drilling)' 17:00 소) 전석 3만원/(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802-8033)</p>	<p>27</p>	<p>28</p> <p>부산시립극단 예술교육공연 '음악극 나혜석' 10:30, 14:0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15)</p>	<p>29</p> <p>부산시립극단 예술교육공 10:30, 14:0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p>

THU	FRI	SAT
<p>2</p> <p>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영화음악이야기-부산이 좋다, 영화가 좋다' 10:00 대 전문화유목집단 동행(010-2026-8280) 부산시립예술단 토크오페라 '마술피리' 10:30 소 전석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3, 3115)</p>	<p>3</p> <p>경현예술봉사단 창단 16주년 기념공연 14:00 대 경현예술봉사단(010-4544-5383) 부산시립예술단 토크오페라 '마술피리' 10:30 소 전석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3, 3115) 2024 시민뜨락축제 '위나재즈밴드, 조아합창단' 12:10 아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4</p>
<p>9</p> <p>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어릴적예·황소가 된 게으름뱅이' 09:30, 11:00 소 극단 오오씨어터(010-4570-4422)</p>	<p>10</p> <p>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어릴적예·황소가 된 게으름뱅이' 9:30, 11:00 소 극단 오오씨어터(010-4570-4422) 2024 시민뜨락축제 '씨니문재즈밴드, 에글레또' 12:10 아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1</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가족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11:00, 15:00 대 5만5천원-4만4천원-2만2천원(24개월 이상 관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노랑문화제 15:00 소 노무현재단(819-3072)</p>
<p>16</p> <p>부산시립합창단 예술교육공연 '지그재그 음악놀이' 10:30 소 전석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3, 3115)</p>	<p>17</p> <p>부산시립합창단 예술교육공연 '지그재그 음악놀이' 10:30 소 전석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3, 3115) 2024 시민뜨락축제 '친친탱고,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12:10 아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8</p> <p>◇부산시립극단 제77회 정기공연 '음악극 나혜석' 17:00 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진시장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소 부산진시장여성합창단(010-7355-7093)</p>
<p>23</p> <p>부산시립극단 예술교육공연 '음악극 나혜석' 10:30, 14:0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15)</p>	<p>24</p> <p>◇부산시립극단 제77회 정기공연 '음악극 나혜석' 14:00(예술교육공연), 19:30 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5</p> <p>◇부산시립극단 제77회 정기공연 '음악극 나혜석' 17:00 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국제연극제 초청공연 '시추(Drilling)' 17:00 소 전석 3만원/(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802-8033)</p>
<p>30</p> <p>부산시립극단 예술교육공연 '음악극 나혜석' 10:30, 14:0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3, 3115) 2024 부산국제연극제 초청공연 '인사이드(The Insider)' 19:30 소 전석 3만원/(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802-8033)</p>	<p>31</p> <p>◇부산시립극단 제77회 정기공연 '음악극 나혜석' 14:00(예술교육공연), 19:30 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4 부산국제연극제 초청공연 '인사이드(The Insider)' 19:30 소 전석 3만원/(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802-8033)</p>	



예술감독 다니엘 도즈

루돌프 부흐빈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III & V

RUDOLPH BUCHHINDER

BEETHOVEN
PIANO CONCERTOS III&V

지휘&협연 루돌프 부흐빈더 | 예술감독 다니엘 도즈 | 연주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2024. 6. 29 (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rco Borggreve ©Fabrice Umiglia

INVITATION TO THE ARTS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C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H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2774-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O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E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E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S SM아트홀 1600-1602



국악의 유쾌한 반란

토크 콘서트 **살롱 드 국악**

5월 14일(화), 6월 27일(목)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석 3만원(2회 패키지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국악은 더 이상 어렵거나 지루한 옛것이 아닌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대중과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토크 콘서트 '살롱 드 국악'은 부산시민회관이 지난해 '공감, 4인 4색'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마련한 연사 초청 강연으로, 국악 장르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로 국악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이다. 특히 국악과 대중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국악계의 '아이돌'과 '이단아'로 불리는 국내 최고 소리꾼 김준수, 이희문이 연사로 올라 다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관객과 만난다.

이번 '살롱 드 국악'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인터파크 온라인 예매(tickets.interpark.com), 그리고 전화예매(607-6000)로 가능하며, 좌석권은 전석 3만 원이나 2개 동시 패키지의 경우 4만 원으로 예매 가능하다.

5월 14일(화) 김준수 '소통의 노래 판소리'



'국악계의 아이돌' 김준수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수궁가 이수자로, 국립창극단 30년 만의 최연소 단원으로 이름을 알렸다. 2021년 JTBC '풍류대장' 준우승에 이어 2022년 KBS 국악대상에서 역대 최연소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수많은 팬층을 두고

있는 국악스타로, 현재 국악과 판소리에 뿌리를 두고 창극, 방송 및 뮤지컬 등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준수는 판소리가 '소통의 음악'이라며, 추임새를 통해 이 시대 관객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함께 호흡해왔다. 이번 '살롱 드 국악'에서 김준수는 판소리와 함께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열정을 쏟은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관객과 소통한다.

6월 27일(목) 이희문 '내 민요는 섹시하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무는 힙한 전통음악 소리꾼 이희민, 그는 민요에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높은 하이힐, 핑키한 가발 등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가며 '파격의 아이콘', '국악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경기 소리꾼이다. 2017년 한



국 최초로 미국의 공영 라디오방송 'Tiny Desk Concert'에 초대받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그에 힘입어 2019년 KBS '도올아인 오방간다'에 고정패널로 출연하여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경기민요를 시작한 지 20년, 그의 행보에는 인상적인 비주얼 뿐 아니라 그만의 개성을 살린 음악이 있었다.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무대를 뛰노는 그는 이번 '살롱 드 국악'에서 그의 섹시한 민요 이야기와 함께 보고 듣고 따라 할 수 있는 '힙'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국악의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인다.



사운드
극악극

김준수

2024. 5. 14. (화)
19:00-20:00

이희문

2024. 6. 27. (목)
19:00-20:00

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티켓 전석 3만원 예매 및 문의 부산시민회관(051-607-6000, ARS 1번), 인터파크



‘살롱 드 국악’ 부산이 알아야 할 新국악맛집

• 윤종강 국악평론가

‘국악계의 아이돌’ 김준수와 ‘국악계의 이단아’ 이희문이 부산시민과 만난다! 기쁜 소식을 접하며, 강한 확신이 생긴다. 5월의 김준수에 대한 확신. “판소리는 친해지기 어려워도, 김준수와 쉽게 친해졌다” “앞으로 김준수를 통해서 판소리와 친해지고, 창극의 세계에 빠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6월의 이희문에 대한 확신. “세상을 살면서 많은 남자를 봐왔지만, 이희문 같은 남자는 생전 처음이다.” “그 남자가 부르는 노래가 경기민요라지. 그동안 나와 관계없는 진부한 노래라 여겼는데, 이희문을 통해 듣는 경기민요는 매력 넘치네.”

한국전쟁기, 부산시민이 살려낸 국악이 있다!

김준수는 판소리를 하고, 이희문은 경기민요를 부른다. 선입견에선 판소리는 전라도 소리,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지방의 노래라고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다. 한국전쟁기, 부산에서 가장 ‘핫하게’ 유행한 ‘여성국극’이 있다. 여성국극은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창극이다. 부산의 여성팬이 가장 좋아했던 게 여성국극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받았던 당시 부산의 여성들은 가장 용기있었다. ‘고무신부대’라고 불렸던 그녀들은 여성국극의 든든한 팬들이었고, 용기있던 부산시민들은 여성국극을 유행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준 거다.

여성국극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배역은 남성 역할. 여성국극 속의 여성은 ‘여성이 원하는 남성상’이다. 21세기에 ‘여성이 원하는 남성상’ 혹은 ‘여성이 원하는 아티스트’의 모습은 어떠한 까? 20세기 만해도 풍채 좋은 성악가가 마티네 콘서트에서 인

기 있었다. 지금은 달라졌다. 21세기에는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느낌의 남성 아티스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김준수는 다정하고, 이희문은 다감하다. 그들의 얘기 속엔, 국악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 자신의 얘기가 더 많고, 우린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다.

타 장르에선 절대 만날 수 없는 두 아티스트

세상의 취향이 달라지면서, 이제 국악이 새로운 취향으로서 든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텐데, 그것이 부산의 영민한 기획자가 먼저 알아본 느낌이 든다. 이희문과 같은 아티스트, 김준수와 같은 아티스트는 타 장르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아티스트다. 오직 국악계에만 존재하는 묘한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다. 이 두 아티스트의 독특한 개성을 부산의 기획자가 알아보고, 부산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토크쇼 자리가 마련된다고 하니 참 기쁘다.

김준수와 이희문은 장르를 달리해도 묘한 공통점이 있다. 장르의 문법을 준수하면서도, 그 안에서 묘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다. 비유컨대, 기존의 문법을 바탕으로 하되, 그렇게 쓴 문장은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다. 법고창신(法古倉新)은 이럴 때 하는 말이다. 두 사람은 옛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우 새롭게 즐길 걸 전해준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아름다운 공존

김준수와 이희문의 또 다른 매력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아름다운 공존’이다. 김준수는 창극에서 여성 역할을 능숙하게 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세기엔 남성다운 남성, 여성다운 여성을 주목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별반 이런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다는 자체가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느껴지기에 더욱 그렇다. 21세기를 20년이상 지나면서 ‘섹시함’의 기준은 달라졌다. ‘자기만의 고유한 매력’을 지닌 사람이 섹시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김준수가 그렇고 이희문이 그렇다.

준수한 준수

대한민국 공공예술단 공연 중, 예매하기 가장 힘든 단체는

어딜까? 매진이 기본인 단체는 어딜까? 국립창극단이다. ‘국립’이 붙은 단체 중에서 가장 핫한 단체가 국립창극단이란 것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한민국 웬만한 뮤지컬 배우의 인기를 뛰



어넘는 지 오래다. 국립창극단의 스타급 배우는 많다. 스타 중 스타는 단연 김준수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김준수를 한번 보면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첫째, 용모부터 준수(俊秀)하다. 김준수에게는 ‘만찐남’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 순정만화에 등장하는 수려한 외모를 지닌 남자는 확 호감이 가지만 그게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김준수는 ‘민찐남’인지 모른다. 만화가 아닌 민화 속의 남자란 얘기다. 조선시대 민화 속에서,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남자들과 김준수는 오버랩된다.

판소리의 중시조(中始祖)로 통하는 신재효(申在孝, 1812~1884)는 광대의 네 가지 조건을 꼽았다. 인물치레, 사설치레, 득음, 너름새가 그것이다. 조선의 광대(소리꾼)으로 이름을 날리려면 우선 외모에서 기품이 느껴져야 한다는 말인데, 김준수는 바로 그렇지 아니한가! 사설치레는 사설, 곧 대사와 가사의 전달력을 말하는데, 창극에서의 연기를 얘기할 때 김준수는 빼놓을 수 없다. 창극 ‘내이름은 사방지’에서의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지닌 역할, 창극 ‘리어’에서 80대 역할을 무난하게 해낸 30대는 최고의 연기자이다.

신재효가 말한 광대의 네 번째 조건에서의 ‘너름새’는 요즘 말로 하면 신체의 움직임이다. 국립창극단의 창극 ‘패왕별희’에서 항우(정보권)를 사랑하는 우희(김준수)를 기억한다면, 거기서 김준수의 검무를 보았는가! 패왕별희는 경극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 중국 대만 홍콩의 전통극배우와 비교해도 오히려 김준수가 윗길이라는 생각마저 마저 든다.

김준수는 이제 세 번째의 조건인 ‘득음’을 향해 꾸준히 향해가고 있다. ‘국악아이돌’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김준수명창’이란 이름을 달 날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김준수는

준수(遵守)한다. ‘바른생활 청년’이다. 사회가 정한 규칙,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김준수의 성실성은 결국 김준수를 판소리의 가장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진솔한 희문

일찍이 춤과 노래에 출중한 재능을 가진 소년 희문은, 특히 여성의 노래를 좋아했다. 수많은 여가수의 춤을 모두 따라했지만, 특히 민해경이 가장 좋았다. 춤이 좋았다. 서울 강남에 살던 희문은 종로 3가 한 대형음반매장에서 팬 사인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생전 처음 혼자 버스를 타고 강북에 왔다. 중학생 희문이 가수 민해경에게 한 말 “나도 누나처럼 가수가 될 거예요.”



명창을 어머니로 둔 이희문은 결국 민요의 세계를 택했다. 그런데 그가 부르는 민요는 기존의 민요와는 다르다. 그는 명창이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 사람이다. 경기민요는 여성이 중심이 된 노래라는 선입견을 깨부수는 사람이다. 20세기의 명창이라는 관념을 넘어서서, 21세기의 명창을 새롭게 자리매김 나가고 있는, ‘개념 충만 소리꾼’이다. 이희문이 부르는 경기민요는 웬지 대중가요나 K-POP을 듣는 것 같다. 옛노래라는 선입견은 멀리 사라지고, 부담감 제로인 상태에서 묘한 중독성까지 경험하게 된다. 그건 그가 경기민요를 옛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노래 속에 자신이 살았던 시대와 주변 얘기를 담아내기에 그렇다.

이희문을 특별히 인정하는 이유는 무얼까? “부르는 노래는 같아도, 거기에 담긴 의미는 다르다.” 과거의 민요에 자신을 담아내고, 자신의 부모세대를 담아낸다. 세상에 남에게 가장 하기 어려운 얘기가 가족얘기라고 하던가. 이희문은 노래를 통해서 자신이 살았던 시대와 그 시대의 부모님의 얘기를 진솔하고 풀어낸다. 이희문은 ‘경기민요에 삶의 진정성을 담아내는 소리꾼’이다. 솔직함하면 부산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도시인데, 이희문과 부산시민의 진솔한 만남에 대한 기대가 참 크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5월 온 가족이 즐기는 공연장 나들이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클래식과 친해지다

부산시립예술단은 토코오페라 ‘마술피리’로 어린이들과 만난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는 지난 2022년, 2023년 큰 화제를 모은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에 이은 부산시립예술단의 두 번째 토코오페라로, 흥미진진하게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줄거리와 극적이고 다채로운 음악으로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와 음악코치 권수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실력있는 지역 성악가들이 함께 한다. 특히 5월 3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마술피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페라 입문과정으로, 화려한 영상과 유쾌한 스토리,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자막으로 어린이들에게 오페라의 매력을 알려주며, 분장 체험을 통해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매년 5월 선보이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클래식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기획된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이다. 부산시립교향악

단 부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는 올해 무대에서는 클래식 입문을 위한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영국 작곡가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과 슈만의 ‘어린이 정경’이 연주된다. 1947년 출판된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은 영국 정부가 교육용으로 관현악 해설 영화를 제작하면서 브리튼에게 작곡을 의뢰, 탄생된 작품으로 오늘날에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 연주 무대에서도 자주 연주된다. 영국의 선배 작곡가인 퍼셀의 곡을 주제선율로 구성함으로써 ‘퍼셀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다. 관현악의 각 악기와 그 특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음악을 연주하는 사이 해설자의 해설을 통해 연주가 끝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관현악을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정경’은 슈만이 간직했던 동심과 어린 시절의 회상을 표현한 작품으로, ‘어른을 위한 동화’라 불리기도 한다. 사랑하는 클라라를 위해 작곡된 작품으로, 총 13개의 소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연은 5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예술단 토코오페라 ‘마술피리’



4월 24일(수)~5월 3일(금) 오전 10:30
※ 주말제외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석 1만원(초등학생 이상 관람)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우리아이음악회



5월 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1만원(만 24개월 이상 관람)

고품격 음악극을 즐긴다

어린이날 주간인 5월 4일과 5일에는 부산시립합창단이 기획한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를 만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피노키오’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이번 작품은 원작에 등장하는 파란 요정을 파란 마녀로 설정, 주인공 피노키오와 파란 마녀 사이에 거짓말을 두고 벌어지는 사건들과 그로 인한 갈등과 화해를 노래와 춤으로 풀어낸다.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이기선, 부지휘자 임희준이 회차를 나눠 각각 지휘하고 작곡가 이진실이 각색 및 작·편곡을,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310밴드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와 부산시립합창단의 수준높은 합창이 더해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고품격 어린이 뮤지컬을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합창음악극 ‘엄마, 같이 걸을까’를 선보인다. 사춘기가 시작된 딸과 엄마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음악과 연기, 영상으로 보여주는 합창 음악극으로, 어린 시절의 엄마, 엄마가 된 나를 타임슬립(시간여행)을 통해 만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을 되새겨 본다. 5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수석지휘자 천경필의 지휘로 열린다.

마리오네트와 공룡을 만나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는 국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초등학교 맞춤 프로그램 ‘영도할매 마리오네트 인형과 함께 떠나는 영도 국악의 사계’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영도와 관련한 스토리텔링과 마리오네트 인형, 영상이 국악 연주와 어우러지는 장르 융합 프로그램으로, 특히 어린이 관객들에게 다양한 예술 체험과 즐거운 추억을 선사한다.

역사와 함께하는 뮤지엄 판타지 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는 5월 11일과 12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공룡이 살아있다’는 국내 창작 가족뮤지컬 역사상 첫



부산시립합창단 제192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5월 3일(금) 오후 7:30
4일(토) 오전 11:00, 오후 3:00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3회 정기연주회

합창음악극 ‘엄마, 같이 걸을까’

5월 25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3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공연

영도 할매 마리오네트 인형과 함께 떠나는 국악사계



5월 8일(수)-9일(목) 오전 10: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1만원(초등학교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가족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5월 11일(토)-12일(일)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VIP석 5만5천원, R석 4만4천원
S석 2만2천원(24개월 이상 관람)



해외 진출에 성공한 작품으로, 2016년 한국 초연 이후 홍콩,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 해외 투어 일정을 마치고 5년 만에 다시 국내 무대에 오른다. 사라진 아기 티라노 화석 ‘타루’를 찾기 위한 모험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이번 작품은 뮤지컬 전문 배우를 비롯한 마샬아츠 전문 배우들의 노련한 연기와 오브제의 정교한 움직임을 통해 공룡과 함께하는 환상적인 판타지를 선사한다.

클래식과 미술이 만나다

미술관 옆 콘서트홀

5월 10일(금), 7월 19일(금), 9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클래식과 미술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 '미술관 옆 콘서트홀'이 5월 10일 '숲의 정령'을 시작으로 올해 세차례 펼쳐진다.

음악과 그림, 공연이 어우러지는 렉처콘서트

'미술관 옆 콘서트홀'은 지난해 오페라와 그림,

공연이 어우러지는 렉처콘서트로 많은 사랑을 받은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로, 특별한 키워드로 묶어진 음악과 미술작품을 상세한 해설과 연주로 만날 수 있다. 지난 시즌에서도 환상적인 호응으로 시리즈의 매니아층을 만들었던 아트스토리텔러 이주헌과 클래식 전문 아나운서 손지현이 다시 한번 매력적인 케미스트리를 선보인다. 이번 '미술관 옆 콘서트'는 싱그러운 녹음이 돌아나는 5월 '숲의 정령'에 이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젊음과 바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헤어짐과 그리움'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음악과 미술작품을 준비하고 관객들을 기다린다.

이번 무대에서 관객들을 미술관으로 안내할 이주헌은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 문화부 미술 담당 기자, 미술 잡지 편집장을 거쳐 학교재 갤러리와 서울미술관 관장을 역임했다. 이주헌은 미술평론가이자 미술 이야기



꾼으로 활동하며 미술을 통해 삶과 세상을 보고, 그 속에서 좀 더 쉽고 폭넓게 미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도 꾸준히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다. 그가 출간한 대표적인 저서로는 '신화의 미술관'(전2권), '지식의 미술관', '역사의 미술관',

'리더의 명화 수업', '10대를 위한 이주헌의 창조의 미술관',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 1:2', '신화, 그림으로 읽기', '현대미술의 심장 뉴욕 미술' 등이 있으며, 한국교육방송(EBS)에서 '이주헌의 미술기행', '청소년 미술감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산뜻하고도 깊이있는 해설로 사랑받는 아나운서 손지현은 부산MBC 공채 아나운서로, 클래식FM 가정음악실, TV프로그램 부산부산문화 등을 진행했으며, 부산MBC 창사 60주년 기념 부산사랑음악회를 비롯해 부산클래식음악제, 제야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는 부산의 문화, 예술을 대표하는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다.

5월 10일 숲의 정령

서양미술에서 가장 많이 그려진 정령(精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님프다. 님프는 자연이 의인화된 존재로, 그 기운을 대변하는 여성적인 인격체다. 인간과 동일한 형상을 지녔



고 인간과 소통할 뿐 아니라 심지어 사랑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화가들은 님프를 아름답고 순수하며 신비로운 존재로 표현했으며, 그런 님프들이 신이나 사람과 만나서 파생되는 사랑 이야기를 즐겨 그렸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서양 화가들이 그린 님프의 다양한 모습과 인기 있는 사랑 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미술작품

가스통 뷔시에르, 님프, 1929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힐라스와 님프들, 1896

미셸 마르탱 드롤링,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1820

연주곡목

슈베르트/ 연가곡 '백조의 노래' 중 '세레나데'

차이콥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바흐/ '사냥 칸타타' 중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글룩/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케' 중 '정령들의 춤'

연주단체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Vn. 박경희, 정진경 Va. 박주연 Vc. 전명희

Pf. 서혜리 Fl. 안병건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7월 19일 젊음과 바다

젊음의 활력과 에너지를 대변하는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태양과 바다를 즐기면서 자연과 하나가 된다. 바다는 사실적인 풍경, 신화, 또 산업화 이후 중산층의 레저문화를 주제로 한 그림 속에서 많이 다뤄졌다. 해양 풍경화의 대가 터너, 흥겨운 바다 주제를 많이 그린 뉘피 등 다양한 장르와 주제 속 바다 그림을 감상하며 젊음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9월 6일 헤어짐과 그리움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지면 자연도 휴식기에 드는 헤어짐의 계절, 가을이다. 이번 시간에서는 계절에 걸맞는 이별과 그리움을 주제로 한 미술작품들을 감상해본다. 에곤 실레 같이 단명한 화가가 그린 고독한 가을 주제의 풍경화를 비롯하여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재회와 이별을 주제로 한 코르의 그림 등을 보며 이 가을,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해보자.

부산시립극단 제77회 정기공연

음악극 나혜석

5월 18일(토)-6월 1일(토)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 화~목요일 오전 10:30, 오후 2:00, **금요일 오후 2:00 공연은 예술교육공연**)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전석 2만원(15세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시대를 앞서 간 한국 최초의 여성 화가 나혜석의 삶과 사상을 되돌아보는 부산시립극단의 '음악극 나혜석'이 올해 다시 무대에 오른다.

'음악극 나혜석'은 2021년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실현실 프로젝트', 2022년 제73회 정기공연으로 선보여 새로운 실험과 도전으로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연극과 음악, 합창, 무용, 영상을 결합하고 대극장 위 객석으로 둘러싸인 원형무대에서 공연을 펼친다.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으며 백현주가 작사, 작곡 및 편곡, 홍충민이 안무와 움직임 연출을 맡았다. 또한 부산시립합창단 이기선 예술감독, 임희준 부지휘자가 지휘하는 부산시립합창단, 그리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업으로 보다 스펙타클한 무대를 선사한다.

1948년 서울 자혜병원에서 무연고 행려병자로 쓸쓸히 죽음을 맞은 나혜석은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진보적 여성 운동가, 문필가로 이름을 날린 신여성이었다. 이렇듯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가 왜 그 당시에는 그토록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을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몇 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녀의 작품과 사상을 보며 놀라워할까. 도대체 나혜석은 그 긴 세월 동안 어디에 파묻혀있었던 말인가. 그리고 누가 파묻었을까.

이번 작품은 나혜석의 삶을 통해 그녀의 존재로 대변되는 당시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여성인권 확대가 사회적인 저항이나 혹은 기득권과 부딪혀 갈등을 빚었을 때 발생하는 비극적 상황에 대한 고찰이자 오늘날의 현실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부조리를 직시하고 성찰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



다. 특히 올해는 중·고등 예술교육과 연계하여 3주에 걸친 장기공연에 들어간다.

5월 25일 본공연에 앞서 오후 3시부터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역사학자 주진오가 진행하는 특강 '신여성 나혜석의 삶과 꿈'이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음악극 나혜석' 티켓을 구입한 관객들은 무료로 청강이 가능하다. 주진오는 2022년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로 정년 퇴임하기까지 35년간 상명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 주로 한국의 근대 개혁운동과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으로 있는 동안 박물관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역사 콘서트를 기획하고 공연에서 직접 해설을 담당했다.



역사학자 주진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II 줌인(Zoom-in) 1

5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는 2024년 올 한해, 보다 다양해지고 특별해진 실내악 무대로 관객들과 만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실내악 시리즈'는 정기연주회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다채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들려줌으로써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존의 '실내악공장'을 더욱 업

그레이드시켜 단원뿐 아니라 외부의 실력있는 연주자와 정기연주회 협연자까지 협업무대를 가짐으로써 보다 진화되어가는 실내악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이번 무대는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줌인(Zoom in)' 무대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과 외부 연주자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무대이다. 2024년 '줌인(Zoom in)' 첫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대표하는 트럼페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가 '주목할 만한 개성과 우아한 음악성'을 지닌 피아니스트 박종훈과 협업무대를 펼친다.

트럼페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는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악대학 및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모스크바 콘서바토리)을 졸업하고 말리 주립 오케스트라, 볼쇼이 극장,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트럼펫 콩쿠르에서 3위 입상한 로카렌코프는 그동안 히로시마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경북도향립교향악단, 부산윈드오케스트라, 제주시립관악단, 부산시립합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피아노 박종훈

창단 등 다수 연주단체와 협업무대를 가졌으며, 모스크바 심포니에타와 음반 'Brass friends'를 출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예술영재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는 박종훈은 2009년 한국인 최초로

리스트의 초절기고 연습곡 전곡을 완주한 실력과 연주자로, 그동안 카네기홀, 베를린 필하모닉홀,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아 홀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 도시에서 연주를 가져왔다.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의 해설과 진행을 맡았으며,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교향악 축제'에 총 4회 출연했다. 2015년 11월, 예술의전당에서 자신이 직접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을 초연하였는데 피아니스트가 직접 협주곡을 작곡하여 연주한 것은 국내 피아니스트로서는 유일 무이하다. 피아니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작곡가, 프로듀서, 방송인, 배우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드라마 '밀회'를 시작으로 '너를 사랑한 시간', '페이지터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에 배우로 출연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트럼펫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고난도 테크닉을 선보이며 트럼펫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오다

창작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6월 4일(화)~5일(수) 오전 10:30, 6일(목) 오후 2:00, 7일(금) 오전 10:30, 오후 7:30

8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9일(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48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해 인기스포츠 '야구'와 K-뮤지컬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었던 창작뮤지컬 '야구왕, 마린스!'가 6월 4일 두 번째 시즌을 개막한다.

관객의 마음에 흥분을 날린

NEW 스포츠 뮤지컬

(재)부산문화회관과 라이브(주)가 2년에 걸쳐 공동 기획·제작하여 2023년 7월, 첫 선을 보인 '야구왕, 마린스!'는 유소년 야구단인 마린스 리틀 야구단의 이야기

를 그린 작품으로, 초연 당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스포츠 뮤지컬의 탄생을 알리며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야구왕, 마린스!'는 부산광역시가 진행한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사업의 일환으로, 뮤지컬 배우 및 기획, 홍보, 무대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30여 명이 대형 뮤지컬 제작 공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영역 확장에도 이바지한 바 있다.

작품은 가상의 부산 유소년 야구단 '마린스 리틀 야구단'이 전국 최강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따라간다. 각각 다른 계기로 입단한 선수들은 처음에는 서로 갈등을 빚지만, 점차 야구의 매력에 빠져들어 승리를 위해 땀땀 뭉친다. 패배해도 꺾이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객석에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그라운드로 다시 돌아온

아역 배우 6인방

1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야구왕, 마린스!'는 초연 오리지널 캐스트가 대거 합류해 더욱 탄탄해진 시너지를 예고한다. 초연을 빛낸 대세 아역 배우 6인방이 새로운 시즌을 맞아 그라운드로 돌아온다. 야구와는 조금도 접점이 없는 집에서 자랐지만 타고난 피지컬 덕분에 4번 타자로 발탁된 '이남호' 역에는 뮤지컬 '마틸다'의 브루스 역을 통해 무대 장악

력을 보여준 김주혁이 캐스팅되었다. 전설적인 투수였던 큰 아버지를 보며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운 구단의 에이스 '주현우' 역에는 '베토펴', '팬텀' 등 다수의 인기 대형 뮤지컬에 출연한 김주안이 이름을 올렸다. 재능이 넘치지만 타석에만 서면 긴장해서 공을 치지 못하는 타자 '김민수' 역은 무용극 '벽을 뚫고 나온 꽃'과 악극 '불효자는 읍니다'로 관객을 만나온 김예성이 맡는다. 공을 보지도 않고 배트를 휘두르는 성질 급한 타자 '선우홍' 역은 뮤지컬 '킹키부츠'에서 어린 찰리 역으로 눈도장을 찍은 박시우가 맡는다. 도 대표 육상 선수를 그만두고 1번 타자로 합류한 '차지윤' 역은 뮤지컬 '마틸다'에서 엘리스 역을 맡은 정혜람이 연기하며, 축구팀 골키퍼를 하다가 포수로 합류한 '유준환' 역에는 초연 당시 오디션을 통해 '선우홍' 역으로 발탁되어 데뷔한 이산이 역할을 바꿔 캐스팅되었다.



초연에서 '해설'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국민 배우 김수로도 재연 합류를 확정지었다. 해설 역은 마린스 리틀 야구단의 승리를 기원하며 유튜브로 이들의 경기를 중계하는 역할로 작품에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뮤지컬, 연극, 영화, 드라마를 종횡무진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김수로는 초연 당시 특유의 유쾌한 입담으로 박수 갈채를 이끌어냈다. 또한 초연에서 '고우철' 코치 역으로 활약한 김기무가 이번에는 '해설' 역에 더블 캐스팅 되었는데, 김기무는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모차르트!', '엘리자벳' 등에 참여했으며, 최근 영화 '서울의 봄'에 출연한 바 있다.

'마린스 리틀야구단'을 지지하고 이끌어주는 주변 인물들 또한 초연 출연진이 다시 맡아 노련한 연기를 펼친다. 야구 중계로 적성을 되찾은 아나운서 출신 육아맘 '캐스터' 역에는 뮤지컬 '빨래' '앤ANNE' 등에서 정감가는 연기를 펼친 하은주가 출연한다. 속사포 같은 그의 중계 멘트는 경기 장면에 생동감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영부영 구단



을 이끌어오다 안나를 만나 변하는 코치 '고우철' 역은 뮤지컬 '22년 2개월', '보이체크 인 더 다크' 등에 출연한 부산 출신 배우 정호준이 연기하고 뛰어난 분석력을 지닌 신인 감독 '유안나' 역은 '마리 퀴리', '다이시' 등에 출연한 옥경민이 맡는다. 정호준과 옥경민은 부산 지역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지역 청년예술인으로 선발되어 초연부터 함께했다. 올해 역시 공개오디션을 통해 김정민, 이정민, 최영우, 황성환 등 배우 네 명을 포함, 11명의 지역 청년 예술인이 함께 한다.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 야구장

'야구왕, 마린스!'는 초연에서 실제 야구 경기를 방불케하는 무대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무대에 거대한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야구장 풍경을 실감나게 옮겨 실제 야구 경기를 보는 것 같다는 호평 세례를 받았다. 야구 동작을 응용한 에너지 넘치는 안무와 응원가 못지 않은 흥겨운 음악 또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올해는 더욱 업그레이드 된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야구왕, 마린스!'는 2024 K-뮤지컬국제마켓 드림 완성 작품 부문에 선정되어 해외 진출에도 시동을 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K-뮤지컬국제마켓은 한국 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드림 완성작품 최종 선정작은 오는 11월 대만에서 열리는 'K-뮤지컬로드쇼 in 아시아(대만)'를 통해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2024 제21회 부산국제연극제

The 21st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24



5월 24일(금)-6월 2일(일)

영화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외 부산시내 소극장

부산국제연극제 802-8003, www.bipaf.org



개막작 플렉서스 플레어 '모비딕(Moby Dick)'



폐막작 페르소나 시어터&사르디니아 시어터 '맥베투(Macbettu)'

성년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부산국제연극제가 5월 24일 그 화려한 축제의 문을 연다.

지난 2004년 첫 발을 내딛은 부산국제연극제는 매년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며 부산 최대의 공연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 2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20년을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모색했던 부산국제연극제는 올해 'Global Link from BIPAF'라는 콘셉트로, 우수작 초청뿐 아니라 해외 진출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및 부산 연극이 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 글로벌 시대로 나아가고자 한다.

특히 올해 연극제는 2024년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 주한이탈리아 문화원과의 협업으로 개막작을 포함한 국내·외 우수 초청공연과 해외 진출경연프로그램인 'Global Program'으로 진행된다. 개막작은 감독이자 배우, 인형제작자인 잉빌드 아스펠리가 이끄는 인형극단 '플렉서스 플레어'의 '모비딕(Moby Dick)'으로, 5월 24일과 25일 영화의전당

초청공연



극단 문지방 '시추(Drilling)'



GDO-UDA company '부재 불균형 균형(Absence Imbalance Balance)'



아토 유니코&수드 코스타 오치덴탈레 '자비(Misericordia)'



극단 카타펠트 '인사이드(The Insider)'

하늘연극장에서 펼쳐진다.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을 원작으로, 7명의 배우들이 조종하는 실물 사이즈의 50개 인형들과 생생한 영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모비딕'은 고대의 흰 고래, 그리고 그의 배를 파멸과 감정의 폭풍 속으로 이끄는 선장의 이야기가 감각적인 연출로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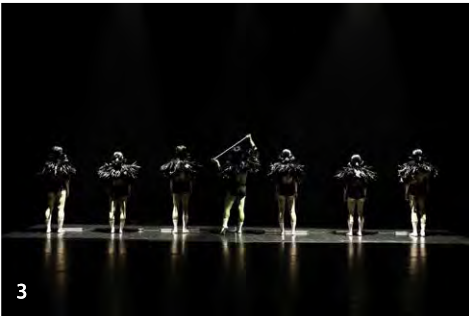
폐막작은 '페르소나 시어터&사르디니아 시어터'의 '맥베투(Macbettu)'로,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를 사르디니아어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전통대로 남자 배우만이 출연하며, 빈 무대와 단 몇 개의 구조물들 사이에서 배우들은 오직 몸으로 작품을 만들어 낸다. 2017년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연극 시상식인 'Premio UBU'에서 'Best performance'을 수상했으며, 유럽 전역에 이어 아시아 투어를 거쳐 마침내 부산국제연극제를 통해 국내 초연된다. 6월 1일과 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국내외 초청공연에서는 5명의 무용수들이 책상 하나만이 놓여있는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텅 빈 공간을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부재 불균형 균형(GDO-UDA company, 이탈리아)'과 '모성'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며 여성과 그들의 사랑과 인생에 대해 가슴 아픈 경의를 표하는 '자비(아토 유니코&수드 코스타 오치덴탈레, 이탈리아)', 3D와 시네마틱 사운드, 그리고 비디오 프로젝션을 결합한 사운드와 서스펜스로 가득 찬 '인사이드(카타펠트, 덴마크)', 지난해 제20회 부산국제연극제 '주목할 작품'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나는 '시추(극단 문지방, 한국)' 등 네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해외 진출 경연프로그램인 'Global Program'에서는 후덴스컴퍼니의 '4후', 성북동비둘기의 '메이드 인 코리아', 블루댄스씨어터2의 '8음', 99아트컴퍼니의 '제(祭)_타오르는 삶', 초록소의 '티핑포인트' 등 다섯 작품이 선정됐다. 춤으로 그

문화가 화제

Global Program



리는 아름다운 모노드라마 '4후'는 80세 노파의 아름다운 여행 이야기를 담은 무용극으로, 독무의 언어, 정제된 한국적 음악과 아름다운 라이브 영상의 조화로 잊지 못할 환상과 꿈속 세계를 보여준다. 고전 작품을 해체/재구성하는 작업을 주로 해온 성북동비둘기는 이번 무대에서 장 주네의 '하녀들'을 새롭게 구성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보이며, 춤·연기·영상 등이 융합된 댄스드라마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 온 블루댄스씨어터2는 몸으로부터 시작되는 진동 '8음'을 통해 새로운 소통의 방법을 제시한다. 99아트컴퍼니의 '제(祭)_타오르는 삶'은 제물을 태워 그 향기를 올리는 제사인 '번제'에 노동자의 삶을 대입하여 그들의 삶이 헛되어 버려지지 않기를 염원하는 현대판 '제의'를 선보인다. 동시대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 사회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주제 의식을 예술로 접근해온 초록소는 이번 작품 '티핑 포인트'에서 뜨거워진 지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녹아버린 빙하를 애도하는 추모퍼포먼스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한다.

한편, 극장이 아닌 야외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어디에서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버스킹 형태의 공연인 '다이나믹 스트릿'은 물론, 시민들이 만들고 공연하는 '10분연극제'를 야외공연으로 만날 수 있다. 수많은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다이나믹스트릿' 6개 참여팀은 주말인 5월 25일과 26일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을 무대 삼아 다이나믹한 거리예술을 선보이며, 더불어 푸드트럭과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Zone을 마련, 야외무대를 찾는 관객들에게 또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일반부, 전공대학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10분연극제'는 1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상의 이야기를 연극, 콩트, 마임, 퍼포먼스, 무용, 뮤지컬, 마술, 난버벌 등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자리로, 6월 1일 광안리 만남의광장과 밀락더마켓에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의 전통 희극 양식인, '코메디아 델 아르페 (Commedia dell'arte)'를 주제로 한 5일간의 워크숍 '마스터 클래스', 초청작 상연 후 초청팀과 관객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아티스트 토크'가 매 공연마다 예정되어 있다.

Global Program

- 1 후댄스컴퍼니 '4후'
- 2 성북동비둘기 '메이드 인 코리아'
- 3 블루댄스씨어터2 '8음'
- 4 99아트컴퍼니 '제(祭)_타오르는 삶'
- 5 초록소의 '티핑포인트'



1 아티스트 토크
2 10분연극제

제21회 부산국제연극제 주요 일정

- 리카르도 피파와 세실리아 캄파니가 진행하는
마스크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5월 20일(월)-24일(금) 오후 1:00
영화의전당 리허설룸
- 플렉서스 플레이어 ‘모비딕(Moby Dick)’ **개막작**
5월 24일(금) 오후 7:30, 25일(토)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극단 문지방 ‘시추(Drilling)’ **초청공연**
5월 25일(토)-26일(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GDO-UDA company
‘부재 불균형 균형(Absence Imbalance Balance)’ **초청공연**
5월 25일(토)-26일(일) 오후 5: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후댄스컴퍼니 ‘4후’ **Global Program**
5월 25일(토)-26일(일) 오후 5:00
용천지랄소극장
- 다이나믹 스트릿 프린지 **참여프로그램**
5월 25일(토)-26일(일)
영화의전당 야외광장
- 아토 유니코&수드 코스타 오치덴탈레
‘자비(Misericordia)’ **초청공연**
5월 27일(월)-28일(화)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성북동비둘기 ‘메이드 인 코리아’ **Global Program**
5월 27일(월)-28일(화) 오후 7:30
하늘바람소극장
- 블루댄스씨어터2 ‘8음’ **Global Program**
5월 28일(화)-29일(수) 오후 7:30
용천지랄소극장
- 극단 카타펠트 ‘인사이드(The Insider)’ **초청공연**
5월 30일(목)-31일(금) 오후 7:30, 6월 1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99아트컴퍼니 ‘제(祭)_타오르는 삶’ **Global Program**
5월 30일(목)-31일(금) 오후 7:30
하늘바람소극장
- 초록소의 ‘티핑포인트’ **Global Program**
5월 31일(금) 오후 7:30, 6월 1일(토) 오후 5:00
용천지랄소극장
- 10분연극제 **참여프로그램**
6월 1일(토)
광안리 만남의광장, 밀락더마켓
- 페르소나 시어터&사르디니아 시어터
‘맥베투(Macbetu)’ **폐막작**
6월 1일(토)-2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설렘으로 가득한 감동의 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경수 부지휘자 취임연주회 '내일'



김지윤 부산예술대학교 강사

꽃들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봄이 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유채꽃 사이로 봄을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 소리가 들린다. 봄은 언제나 그렇듯 싱그럽고 설레는 계절이다. 봄이 설레이는 이유는 차갑고 까칠했던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삭막했던 배경들이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하여 눈이 행복해지기도 있겠지만, 다시 사계절이 시작되기 때문일 것이다. 무언가 시작한다는 것은 희망과 설렘을 느끼게 해준다.

오늘 그 무엇보다 시작의 설렘으로 가득한 공연이 있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4회 정기연주회이자, 김경수 부지휘자의 취임공연이다. 김경수 부지휘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수석 피리연주자로 다방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프로 연주자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지휘자라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공연을 하게 된 것이다. 처음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지휘자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튼 정식으로 지휘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관객들에게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큰 기대가 되었다.

공연장에는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김경수 부지휘자가 지휘대에 들어서려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뭔가 감동적인 찌릿함이 순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아마 취임

이라는 말에서 나오듯 지휘자로서 정식으로 관객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뭔가 감동적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첫 곡이 시작되었다. '바르도'라는 곡으로 웅장한 곡이었다. 사회자의 설명으로는 관현악곡의 진가를 볼 수 있는 곡이라고 하였는데, 잔잔하면서도 웅장하고, 강약이 잘 어우러져 격정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곡이었다. 전래민요인 '새야새야'의 선율을 차용해서 만든 곡으로 중간중간 익숙한 선율로 인해 더 진지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토끼 인당수에 빠지다'이다. 토끼와 인당수라... 사실 처음에 제목을 보고 순간 뒤흠, 라고 혼란이



왔다. 판소리 대목에서 토끼는 수궁가에서 나오고, 인당수는 심청가인데, 왜 니가 거기서 나와~~ 혼란한 마음에 곡 설명을 다시 보니 판소리와 래퍼의 공연이었다. 판소리와 래퍼의 협업이라, 생소하다. 젊잖은 판소리와 힙한 랩의 조화라니. 수궁가와 심청가, 그리고 판소리꾼과 래퍼의 만남, 정말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대였다. 처음 판소리로 심청가 중 '심봉사가 물에 빠지는 대목'을 개사한 곡을 빠르게 부르다가 끝날 듯한 무렵 래퍼가 등장하여 다시 서로 소리를 주고 받으며, 퍼포먼스까지 더해지니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에도 판소리에서 빠르게 읊조리듯 소리하는 부분을 들을 때면 한국식 랩이라고 생각했던 터라 판소리와 랩의 조화는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색적이었다. 두 소리꾼의 공연은 큰 박수를 자아냈다. 생소한 듯 했지만 너무나도 조화롭게 이어져 나가 관객들이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다.

다음 공연은 학춤의 향연이었다. 두 종류의 학춤 선보였는데, 학모양의 탈을 쓰고 추는 정재에서 추는 학춤은 학의 동작을 묘사하는 춤사위로 학의 본질적인 움직임 잘 표현하고 있다. '동래학춤'은 동래의 대표적인 춤으로 학의 우아한 자태와 선비의 고고함이 잘 어우러져 정재 학춤보다 더 춤사위가 예술적으로 표현되었다. 두 학춤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어 정말 아름다웠다. 학의 자연적인 움직임과 선비의 기품이 느껴지는 도포자락의 움직임이 국악기 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풍류가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줬다.

풍류의 흥에 취해 있을 때 무대에 긴 머리를 날리는 남자가 등장했다.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로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가수 정홍일은 유명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가수이다. 오랫동안 락밴드의 보컬이었는데, 과연 국악과 어떤 조합을 보여줄지 궁금하였다. 부드럽리우면서 힘있는 보컬로 뮤지컬 넘버 '지금 이순간'을 열창하면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뱃노래'부터 '해야'까지 객석과 함께 노래를 주고 받으며 마치 콘서트에 온 것처럼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줬다. 수년간 밴드에서 닦아온 힘 넘치는 성량과 무대 매너,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웅장한 사운드는 관객들을 자리에서 일어서게 했고,

대공연장을 들썩거리게 하였다.

공연이 절정에 다다르고, 마지막 곡이 연주되었다. '영웅을 위하여'라는 곡으로, 영웅의 이미지를 다르게 표현하기 위한 곡이라 설명하였다. 뭔가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하고 소탈한, 마치 슈퍼맨이 변신하기 전의 평범한 신문기자처럼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 누구보다 자신을 희생하며 배려와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영웅의 모습을 묘사한 곡이다. 평범하다고 하지만 웅장한 선율은 저 깊은 심연의 감정을 울렸다. 차분하면서도 울림을 주는 그 선율들로 공연은 마무리 되었다.

많은 공연을 다녔지만 누군가의 시작을 축하해 주는 공연은 정말 뜻깊고 더 감격적이다. 연주회가 끝나고 로비에 나오니 모두 김경수 지휘자의 취임을 축하해주고 있었다. 공연만큼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이동훈 예술감독과 김경수 부지휘자, 그리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발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더 나아가 부산 예술문화의 발전에도 봄남의 선행과 같이 꽃길이 이어졌으면 했다.



이태석 1962~2010의 인류애와 온기를 품은 시간



송현민 음악평론가 월간 <객석> 편집장

“전쟁으로 지친 땅, 아프리카 수단 톤즈에는 훗날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릴 한국인 신부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의대 졸업 이후 홀어머니 만류에도 사제 서품을 받은 이태석 신부님은 현지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성심껏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태양열을 이용해 밤을 밝히고, 학교를 짓고, 스스로 수학 교사가 돼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내전을 거치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눈앞에서 잃은 아이들. 그 아이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코자 선택한 것이 공부와 음악이었습니다. 필기할 것이 없어 배운 것을 그 자리에서 외워 버리는 톤즈의 아이들은 천재 같았고, 심지어 음악에도 재능을 보여 브라스 밴드까지 결성해 각종 행사를 다니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태석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장호

이태석(1962~2010) 신부가 누군지 몰랐다. 하지만 배포된 프로그램북에 담긴 그의 행적을 읽어 내려가며 이 공연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제13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가 지난 3월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 올랐다. 생전에 업적을 남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인이 된 자

의 업적들을 이어가고 기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태석이 남긴 희망의 온기는 그의 고향 부산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음악으로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노력 중 하나로 이태석 신부의 정신에 공감하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치유와 정화를 위해 오충근 예술감독은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운영위원과 해마다 진행되는 음악회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2012년에 시작된 음악회는 오충근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도맡아 오고 있다.

모차르트로, 그의 미소를 떠올려보다

오충근 예술감독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의 지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연마다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고 있다. 이를 통해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는 ‘지속성’과, 음악이라는 예술이 지닌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무대도 ‘지속성’의 힘 위에 ‘새로움’이 더해진 시간이었다. 특히 플루티스트 한여진(독일 NDR 엘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과 하프스트 황세희(하프 듀오 하프시스 멤버)의 존재와 역할이 공연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십대인 두 음악가는 한국 클래식 미래와도 같은 존재이다.

오충근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서곡으로 시작을 끊었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밝고 경쾌하다. 모차르트의 밝고 경쾌한 음악은, 사진 속에서 밝게 웃고 있는 이태석 신부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한여진과 황세희는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에서 함께 했다. 한 대의 악기를 위한 협주곡과 달리, 플루트와 하프가 한 쌍을 이뤄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는 곡이다. 그들의 연주도 훌륭했지만, 기존의 곡과 남다른 형태의 ‘협주곡’을 마주하며, 나는 돕고 사는 것, 즉 인생의 협연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태석 신부가 이국땅에서 선보인 ‘삶의 협연’은 마치 눈앞에 펼쳐진 이 곡처럼 남다른 형태의 것이었다. 그는 의사로서 충분한 명예와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남다른 협연’을 택했던 그의 삶은 외지와 이국에서, 불쌍한 사람들과의 ‘의미있는 화음’을 남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으로, 희로애락의 순간을 느껴보다

2부의 음악과 연주에서는 이태석 신부의 ‘쓸쓸함’과 ‘즐거움’이 느껴졌다.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 2악장이 2부의 문을 열었다. 기타 협주곡으로 작곡된 곡인데, 이번 무대를 위해 황세희가 하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직접 편곡했다. 오충근의 지휘봉이 만드는 부산심포니의 잔잔한 흐름 위에 더해진 황세희의 하프 소리는 맑으면서도 어딘가 쓸쓸함이 느껴졌다. 이국에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던 이태석 신부에게는 쓸쓸하면서도 그만의 힘겨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힘겨움이 있을 때 기쁨도 큰 법이지 않은가. 브라치알디의 ‘베네치아의 사육제’는 힘겨운 시간 뒤에 오는 기쁨의



향연이었다. 트럼펫 협연으로 무대에 자주 오르는 곡인데, 한여진은 트럼펫 못지 않은 생명력 있는 숨결로 힘찬 플루트 연주를 들려주었다.

음악의 힘이란 무엇일까. 우리에게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라는 제목의 회화로 잘 알려진 얀 페르메이르의 또 다른 작품 <음악 수업>에는 하프시코드를 연주하는 어느 여성의 뒷모습이 그려져있다. 그런 그녀가 연주하는 악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음악은 기쁨의 동반자, 슬픔의 치유약”이라고. 아프리카 땅에서 아이들과 함께 브란스 밴드를 만들었던 이태석 신부에게도 음악은 그러한 존재였을지 모른다.

음악 같은 삶을 산, 음악적인 사람

끝 곡은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몰다우’였다. 음악사적으로 본다면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체코 작곡가 스메타나를 기리기 위한 선곡이었을 테지만, 이태석 신부의 삶에서 본다면 기쁨과 쓸쓸함 사이에서 그가 그리워하던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한 곡처럼 느껴졌다. 그에게 ‘조국’이란 무엇이고 어디였을까. 아마도 자신의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곧 그에게 조국이 아니었을까.

정성껏 마련한 곡들이 끝나고 흥겨운 앙코르가 이어졌다. 젊은 단원들로 무장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흥겨움은 마치 이태석 신부로 인해 지금의 행복과 웃음을 누리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을 떠올리게 했다. 사람은 가고, 사랑만 남아. 음악도 그러하다. 멈추면 침묵만 남는 게 음악이다. 하지만 그 감동은 조용히 이어진다. 이태석 신부가 남긴 인류를 향한 애정도 그러할 것이다. 사람은 가고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지금도 이국 땅에 흐르고 있다. 그는 참으로 음악 같은 삶을 살았고, 음악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기리는 이 공연이 더욱더 감동적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이번 공연은 음악가들의 재능기부 음악회로 준비되어 진행되었다. 카리스마를 품은 지휘자 오충근의 ‘카리스마’적인 기부와 한여진과 황세희의 ‘젊은’ 기부를 통해 빛어진 무대였다. 고인이 남긴 온기를 유지하고, 그 뜻을 기리는 이 음악회가 꾸준히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

2024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생태학자 최재천**

일 시 | 5월 3일 금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 장 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대한민국 저명한 강사의 강연과 다채로운 공연이 함께 펼쳐지는 강연형 콘서트.

5월에는 '다양성과 공존: 호모사피엔스를 넘어 호모심비우스로'라는 주제로,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 사회생물학자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해온 이화여자대학교 예과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를 만날 수 있다. 최재천 교수는 호모 사피엔스의 명칭을 공생하는 사람이란 뜻의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sus)'라 제창하고 더불어 사는 인간 호모 심비우스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 테너/이태흠 • 피아노/오재영

슈퍼히어로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영화음악 콘서트

일 시 | 5월 5일 일요일 오후 3:00, 6: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아트인뮤직 02-525-4420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오프닝곡 '해리포터'와 공연 피날레를 책임져줄 '캐리비안의 해적' 등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부터 뮤지컬 배우 이희주가 노래하는 디즈니 음악,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박진희와 마림비스트 김하영의 숨막히는 협연무대 지브리 음악까지 영화관이나 TV 스피커를 통해서 들던 영화음악을 풀 편성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도 드라마틱한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클래식뿐 아니라 대중가요, 팝, 뮤지컬,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 지휘/임동국(상임지휘자)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피아노 콘체르토
거슈윈 & 라흐마니노프

일 시 | 5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두남재ENT 02-6292-9368, 9370



높은 기교와 풍성한 감성표현으로 촉망받는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의 연주로 만날 수 있는 '거슈윈 & 라흐마니노프' 무대.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는 일리아

라쉬코프스키는 세계 유수 콩쿠르를 석권한 후 전 세계를 무대로 그녀의 테크닉과 풍부한 감성표현으로 음악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재즈와 클래식을 접목시킨 거슈윈의 '랩스드 인 블루'와 극강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과 제3번을 들려준다.

- 지휘/최영선
- 연주/일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마이스키 트리오 리사이틀

일 시 | 5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이 시대의 거장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그의 아들 사샤, 딸 릴리로 구성된 마이스키 트리오의 무대.

우리 시대 최고의 첼리스트로 꼽히는 미샤 마이스키는 대표적인 친

한파 연주자로, 1988년 첫 대한공연 이후 꾸준히 한국을 찾고 있다.

마이스키 트리오의 완벽한 앙상블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슈만과 브람스, 쇼스타코비치,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들려준다.

부산공업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음악회
창작칸타타 **용광로 100년 환상곡**

일 시 | 5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부산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853-3823



개교 100주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부산공업고등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음악회.

1924년 5월 5일 부산공업고등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실업계 고등학교로서는 3번째 개교 100년을 앞두고 있는 부산공업고등학교는 이번 기념무대에서 창작칸타타 '용광로 100년 환상곡'을 들려준다.

- 지휘, 작곡/김태호 • 작사/허동윤, 정훈
- 연출/이효석 • 소프라노/김유섬
- 메조소프라노/양송미 • 테너/김지호
- 베이스/김요한 • 연주/KNN방송교향악단
- 합창/마린뮤즈콰이어, 부산하모니합창단,
그린나래 오페라 콰이어

부산시립무용단 제89회 정기공연
빙빙 being-being

일 시 | 5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18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해 창단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부산시립무용단이 2024년 처음 선보이는 정기공연.

'빙빙 being-being'은 우리를 맴도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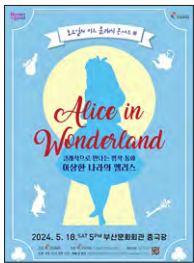
'being 1'에서는 삶의 연속성과 무한함을 민속무용인 강강술래에 대입하여 순환, 시작과 끝 그리고 삶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being 2'에서는 우리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의 삶과 여단가로부터 떠난 자들의 속명과 돌아갈 곳에 대한 동경을 그린다. 두 작품의 교차점에 무용가 이정윤(시간여행자)이 주제를 관통하는 역할을 한다.

- 연출, 안무/이정윤(예술감독)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재)부산문화회관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Ⅲ _ 클래식으로 만나는 명작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일 시 |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 부산문화회관이 2024년 올 한해 꼬마 관객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시리즈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세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흥미를 이끄는 판타지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발레가 함께 하는 음악극으로 만날 수 있다. 명쾌하고 재미있는 해설과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소연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해설로 어린이들의 예술적 감성을 일깨워주며, 풍부한 감정 표현과 섬세한 연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현악사중주단 '엘 콰르텟(L quartet)'이 연주를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4 시민뜨락축제**

일 시 | 4월 26일(금)-5월 17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10 **야외광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이 시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대표적인 야외무대축제 '2024 시민뜨락축제'. 5월 3일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위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나 밴드와 합창을 사랑하는 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조아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5월 10일에는 재즈 특유의 감미로운 선율로 현대인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있는 싸니문 재즈밴드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클래식의 매력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전문 현악연주자들로 구성된 예클레토가 시민뜨락축제를 찾는다. 마지막 무대인 5월 17일에는 탱고음악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친친탱고와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의 연주로 축제의 장을 마무리한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24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일 시 | 5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차세대 연주자들에게 오케스트라 협연의 기회를 통해 다양한 무대경험을 제공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24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6명의 연주자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 바이올린/박은서(부산예술고 재학)
- 바이올린/차은유(센텀중 2학년)
- 더블베이스/전성해(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 플루트/최두원(인제대 3학년)
- 트럼펫/주예준(경성대 4학년)
- 피아노/정민관(트리오 엘 멤버)

2024 제21회 부산국제연극제 극단 문지방 **시추(Drilling)**

일 시 | 5월 25일-26일 토-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부산국제연극제 802-8003



올해 연극제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협업으로 개·폐막작을 포함한 국내외 우수 초청공연과 해외 진출 경연프로그램인 'Global Program'으로 진행된다. 초청공연인 극단 문지방의 '시추(Drilling)'는 지난해 제20회 부산국제연극제 '주목할 작품'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를 오마주한 작품이다. 연극 '시추'에서는 사람들의 뱃속 깊이 여전히 잔존하고 발현되는 '한국식 열등감'에 주목한다. 남극이라는 극한 기후 속에서도 여전히 드러나는 한국인 월동대원들의 심리적 변화를 통해, 오늘날 우리를 절망의 심연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시추'하고 다시 반추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한국예술가협회 제2회 정기연주회 한국예술가곡의 재발견 I **'우리가곡의 향기'**

일 시 | 5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예매시 30% 할인)
 문 의 | (사)이지무스오페라단 010-9550-4649



지난해 5월 창립기념음악회를 연 후 아름다운 우리가곡을 알리는데 힘써 온 한국예술가곡협회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는 '한국예술가곡의 재발견' 첫 번째 무대로, 새로운 선율과 어법으로 탄생한 신작 예술가곡과 주옥같은 애창 가곡을 피아노의 섬세한 표현과 성악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준다.

- 소프라노/이은미, 배수진, 변향숙, 최하숙, 한인숙, 이수진, 박해미, 정애린
- 메조소프라노/강희영 • 피아노/최성근
- 테너/정종철, 조성흥, 윤석
- 바리톤/이석영 베이스/김태형
- 찬조출연/도피안합창단(지휘 장은영, 반주 강혜숙)

2024 제21회 부산국제연극제 극단 카타펠트 **인사이드(The Insider)**

일 시 | 5월 30일-31일 목-금요일 오후 7:30 6월 1일 토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부산국제연극제 802-8003



새로운 현대 드라마와 다수의 코미디 쇼를 개발, 제작, 발표하고 있는 덴마크의 혁신적 단체 카타펠트의 '인사이드'. 2023 에든버러 프린지에서 The Scotsman's Fringe First를 수상한 '인사이드'는 유럽의 실제 금융 사기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속임수와 탐욕, 천재와 금융 사기 사건(CumEx-Files)에 대한 이야기이다. 특히 3D와 시네마틱 사운드, 생생한 연기, 그리고 비디오 프로젝션을 결합한 사운드와 서스펜스로 가득 찬 공연으로, 헤드폰을 끼고 공연을 관람하고 있으면 3D사운드, 영화적 사운드, 그리고 여러 캐릭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관객들은 무대 위의 '내부자'가 되어 함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다.

게네랄파우제 5월 공연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4일 오후 8:00, 6일 오후 3:00)
게네랄파우제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5월 무대.

3일(금) 오후 8:00 Jazz Meets Bohemian Rhapsody



‘우리가 사랑한 영화 속 재즈’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록 그룹 ‘퀸’의 전기를 담은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 주제곡을 강해인 퀸틴의 재즈 연주로 들려준다.

특히 해설과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랑받는 퀸의 곡들을 통해 재즈 연주와 더불어 팝의 역사를 알 수 있다.

- 연주/보컬 정세미, 색소폰 손태호, 피아노 강해인, 베이스 심규환, 드럼 홍영호

4일(토) 오후 8:00 이달현 재즈트리오



볼꽃 카리스마 기타리스트 이달현과 시간을 연주하는 드러머 윤혁성, 그리고 베이스스트 윤혁성의 화려한 베이스 솔로가 돋보이는 재즈의 향연.

프로그램

All the things you are, Autumn leaves, Doxy, Cold duck time, And so on 등

6일(월) 오후 3:00 우리가 사랑했던 만화영화 콘서트



우리가 사랑했던 만화영화 속 대표 OST를 도담양상블의 새로운 편곡 버전으로 만날 수 있는 무대.

- 출연/작곡 강현민, 피아노 손안나, 첼로 정혜주, 플루트 조다은, 바이올린 김민화, 클라리넷 강철주

10일(금) 오후 8:00 지브리 OST 콘서트 IN SPRING



따스한 봄날의 저녁, 지브리 스튜디오의 수록곡을 도담양상블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

- 프로그램**
- 고양이버스(이웃집 토토로), 인생은 회전목마(하울의 움직이는 성), 붉은 돼지, 생명의 이름(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바다가 보이는 마을(마녀배달부 키키), 너를 태우고(천공의 성 라퓨타), 아시

타카(원령공주), 바람위의 포뇨
 • 출연/작곡 강현민, 피아노 손안나, 첼로 정혜주, 플루트 조다은, 바이올린 김민화, 클라리넷 강철주

11일(토) 오후 7:00 Some Other Spring



지나간 봄, 현재의 봄, 다가올 봄, 추억과 활력과 기대의 봄 감성을 실은 다채로운 재즈곡을 효정리그룹(HyoJeongLee Group)의 연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Joy spring, Let there be love, O pato, At last, It might as well be spring, I guess I'm just lucky so and so 등

- 보컬/이효정 • 피아노/오스린
- 베이스/박경윤 • 드럼/피오트르 파블락

18일(토) 오후 7:00 Memories of Spring



따뜻하고 소중했던 봄날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최은아 퀸텟의 따뜻한 재즈음악 선물.

프로그램

Candy, They didn't believe me, The nearness of you, My shining hour 등
 • 연주/보컬 최은아, 피아노 장세연,
 • 베이스 신명준, 드럼 광영일

24일(금) 오후 8:00 섹스텝으로 들어보는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관악 앙상블 참여 들려주는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여러 동물들을 다양한 악기를 통해 유머러스하고 재치있게 묘사한 작품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관악앙상블의 특별한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 플루트/박은주 • 오보에/문동원
- 클라리넷/조가진 • 바순/이보배
- 호른/최희진 • 피아노/강민희
- 작곡 및 해설/박민음

25일(토) 오후 7:00 봄, 꽃 그리고 사랑



소프라노 김정현, 김소라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사한 봄을 노래하는 ‘봄, 꽃 그리고 사랑’.
 • 피아노/박슬기

31일(금) 오후 8:00 Latin Remembrances of My Cuba



Alain ortiz samada trio가 들려주는 라틴 음악의 밤.
 • 드럼/알라인 사마다
 • 베이스/박경윤
 • 피아노 정경수

제64회 부산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후기낭만 부터 근현대까지

일 시 | 5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부산독일가곡연구회 010-8455-2383



1987년 창단된 후 지금까지 63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어렵게만 여겨지던 독일가곡과 문학을 다양한 시도를 통해 관객들에게 알려온 부산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후기낭만 가곡부터 현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독일가곡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 소프라노/강주희, 김리라, 김지혜, 김현주, 장은영, 정애린
- 메조소프라노/강수정
- 테너/김성, 김희수, 문한솔, 이희돈
- 바리톤/김종화 • 반주/박재나 최승희
- 피아노/이보미, 정선애, 최동욱

2024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오페라야! 놀자! 비제의 카르멘

일 시 | 5월 11일 토요일 오후 2: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에메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을숙도문화회관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오페라 무대를 선보이는 ‘오페라야! 놀자!’ 5월 무대.

5월 무대에서는 19세기 스페인을 배경으로 자유분방한 집시 카르멘과 군인 돈 호세와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선보인다.

오페라 콘텐츠 전문 (주)사콘드가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예은, 테너 김성, 플루티스트 황미리가 출연, 오페라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오페라야! 놀자!’는 베르디 ‘아이다’(6월 15일),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8월 24일),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9월 21일),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10월 19일) 등 주요 오페라 작품을 10월까지 선보인다.

기타공연장

5월 스페이스움 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3일 공연없음)
스페이스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움의 5월 무대.

10일(제541회) La Muse 아트콘서트
구스타프 클림트 'Kiss, 불멸의 사랑'



예술을 어렵게 느끼는 이들에게 명화나 클래식 음악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기획해온 앙상블 라뮤즈의 무대.

영화와 음악에 얽힌 에피소드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아트콘서트로, 그림과 음악의 완벽한 교감을 보여준다.

- 도슨트/이주희 • 피아노/정아름
- 플루트/황미리 • 첼로/김기도

17일(제542회) Violin Guitar Duo Concert
'Historia de Amor'

바이올리니스트 신보경과 클래식기타리스트 김경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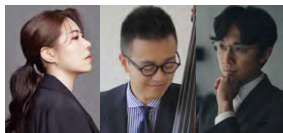


선율들과 함께 펼쳐진다.

Spain Conservatorio Superior de A Coruña 최고과정을 수석 졸업한 신보경은 서울 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선정 '신보경의 바이올린을 위한 스페인 음악' 시리즈 감독 및 연주자로 활동했다.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상임지휘자, 폴리포니기타 듀오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태는 한국기타협회 공쿠르 성인부 1위,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 라이징스타상을 수상하고 2개의 음반을 출시한 바 있다.

24일(제543회) 홍영호 트리오 정규3집 앨범발매 기념 콘서트 'From. Nature'



피아니스트 강혜인, 베이스리스트 신세영, 리

더이자 드러머 홍영호로 이루어진 홍영호 트리오의 정규 3집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무대.

부산의 자연을 주제로 한 '오륙도', '삼각주', '산만다', '7번 국도' 등을 홍영호 트리오만의 색깔로, 모

가 들려주는 시대별 사랑 이야기가 꽃이 피고 지듯이 아름답게 피어 나고 사라지는 애수의

던하면서도 전통적인 재즈사운드를 들려준다. 부산을 대표하는 색소포니스트 손태호와 트럼보니스트 심규성의 협연으로 진한 재즈를 들어 볼 수 있다.

프로그램

How Great Thou Art, 오륙도(Five Six Island), 삼각주(Delta), 7번 국도(Route 7), 산만다(Ridge), Joy Spring

- 협연/색소폰 손태호, 드럼 심규성

31일(제544회) 미술관에 간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 겸 비올리스트이자 작가

로 활동하고 있는 박소현이 2023년 발간한 그의 저서 '미술관에 간 클래식'을 타이틀로 한 무대.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새는 사람들'과 차이코프스키의 '감성적인 왈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등 영화의 명곡을 1대 1로 매칭시켜 영화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입체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 피아노/김나경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66회 정기 연주회

일 시 | 5월 9일-10일 목-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7278-0013,
010-3596-1964



지난 1990년 제갈삼 명예교수에 의해 창단된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66번째 정기연주회.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 듀오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9일 이현욱, 표세구 2인 연주회

부산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이현욱, 표세구의 듀오 무대.

이현욱은 부산대학교 대학원과 프랑스 Ecole Normal de Musique de Paris에서 Diplome Superieur D'Execution 수료 및 실내악 과정을 졸업하고 한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D.M.A)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세대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표세구는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로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와 최영민, 쇼스타코비치, 보르딘, 루토스라브스키의 곡을 듀오연주로 들려준다.

10일 듀오연주회

16명의 연주자들이 듀오를 구성, 다양한 곡을 들려주는 듀오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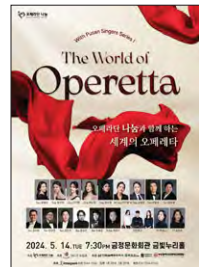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다장조 K.545
생상/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
브람스/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바단조 작품 34b 등

- 연주/서보람, 장서희, 박지은, 허부성, 이수은, 권유희, 서혜리, 성민주, 심하정, 이소진, 이효연, 조혜영, 어숙진, 서아림, 윤예지, 송대현

The World of Operetta

일 시 | 5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1층석 3만원, 2층석 2만원
문 의 | 오페라단 나눔 010-9334-6105



오페라단 나눔과 함께 하는 세계의 오페레타.

가장 대표적인 오페레타 곡이라 할 수 있는 오펜바하의 '지옥의 오르페오'에 등장하는 '강강'을 비롯하여 오페레타의 유명한 작곡가인 슈트라우스, 레하르, 칼만, 하버트의 오페레타와 스페인 민족음악인 사르수엘라 등 다양한 곡들을 부산지역의 성악가들이 들려준다.

- 소프라노/왕기현 정혜리 박소영 정수정 이진영
- 메조소프라노/이지영 손혜은
- 테너/이철성 장지현 양승현 한우인 성민기
- 바리톤/유용준 박순기 윤오건
- 오프닝 연주/천친탱고
- 반주/박재나 최승희

제57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16일-17일 목-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010-3779-9234



지난 1996년 4월, 부산 시 소재 각 대학의 피아노 전공 교수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부산 최대 규모의 피아노음악 전문 공연단체인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의 정기무대. 현재 430여명의 전문

피아니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은 매년 2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피아노음악의 전통을 이어가며 저변확대에도 힘써오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을 회복하며 재가하는 축제의 장으로 관객과 만났던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은 올해 음악과 예술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더불어 연주자로서 기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상반기 무대에서는 '함께_With YOU'라는 주제로, 많은 변화의 시간과 그 변화의 시기에 있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Opus 1

일 시 | 5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명확한 해석과 음악적 균형으로 강력한 마력을 뽐내며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 리사이틀.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음악적 유대감을 이어가고 있는 박정희는 트리오 피아체, 듀오 지음, 소리나 피아노 듀오 멤버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독주는 물론 다양한 실내악 연주활동과 더불어 연재공동체라디오 우리FM 106.3Mhz '클래식여행' 방송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낭만과 20세기 초를 대표하는 슈만, 브람스, 베르크, 프로코피예프 등 작곡가들의 젊은 시절 작곡한, 신선함과 열정으로 가득한 그들의 첫 출품작들을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어 변하지 않았던 음악적 순례자로서의 연주자적 역할에 대한 고백의 시간을 가진다.

16일 김병기·육은화 듀오 리사이틀
 피아니스트 김병기, 육은화가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의 밤.
 프로그램

슈베르트/알레그로 가단조 D.947
 모차르트/1 piano 4 Hands를 위한 소나타 KV.521
 이상훈/네손을 위한 피아노
 거쉰/2 piano 4 Hands를 위한 'I got Rhythm' 변주곡 등

17일 콘서트 '함께_With YOU'
 독주에서 4 Hands, 2 piano 4 Hands, 2 piano 8 Hands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무대.
 프로그램

생상/에튀드 작품 52 제6번
 라벨/소나티네 작품 40
 볼프강 림/6개의 프렐류드
 슈만/1 piano 4 Hands를 위한 피아노5중주 작품 44 등
 • 연주/임상우, 이요한, 황정미, 김진희, 박필은, 정년경, 박환희, 박수현, 김지혜, 우나실, 차은영, 박은정, 김선화, 성민주, 심하정

울속도문화회관 굿모닝콘서트 테너 김지호의 소리가, 음악이 맛있다

일 시 | 5월 17일 금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 (커피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5814



자연속 정원에 자리 잡은 울속도문화회관에서 향긋한 모닝커피와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굿모닝콘서트 5월 무대. 부산의 대표 테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호의 무대로, 사랑과 고향의 그리움을 표현한 한국 가곡, 외국가곡, 아리아를 비롯해 가곡과도 같은 가요, 가요와도 같은 가곡을 통해 다양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특히 수 많은 무대에서의 풍부한 음악적 경험으로 관객과 소통해온 김지호는 이번 무대에서 멋진 발성으로 부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소리도, 음악도 맛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테너/이신범, 성민기 • 바리톤/이태영
- 베이스/손상혁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 제18회 정기연주회 봄의 향연

일 시 | 5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Kongnamul 010-2275-5776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회장 서양지) 정기연주회. 2005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는 이번 무대에서 15명 연주자들의 각자 개성과 열정이 담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스크라빈/피아노 소나타 제4번 올림사장조 작품 30 M. 코닉/네 손을 위한 라틴 모음곡 등 수록
 • 연주/오서향, 최진혁, 배주연, 박희정, 강미, 최은비, 김민지, 강수민, 송대현, 이정희, 강하나, 심정연, 노지영, 석주안
 • 특별출연/플루티스트 조다운

프로이데 무지카와 함께하는 동물의 사육제

일 시 | 5월 18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프로이데 무지카 010-2202-0845



피아니스트 금찬이를 예술감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프로이데 무지카의 무대. 28명의 피아니스트들이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전곡을 듀오 및 2

Hands, 4 Hands로 나누어 들려준다.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는 총 14개의 악장으로, 사자, 캥거루, 닭, 코끼리 등 동물들을 음악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 출연/금찬이, 김태윤, 김선영, 박소진, 송대현, 오혜진, 김주연, 박은영, 정혜선, 백기정, 홍희정, 이혜란, 안지영, 김정훈, 김경미, 이현진, 한지연, 정효인, 최향숙, 김민정, 김초은, 김민지, 허지영, 이영주, 박지현, 남근영

골든심포니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 연주회

일 시 |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골든심포니 오케스트라 010-5823-8565



2022년 9월, 음악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즐기는 부산 사람들이 모여 결성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골든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무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골든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분야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정통 클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겁게 연주하고 있다. 모차르트의 곡으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별히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종과 비올리스트 황여진이 로렌조 카시(Lorenzo Cassi)가 제작한 악기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를 들려준다.

- 지휘/권나은

영화보다 빛나는 영화음악

일 시 | 5월 19일 일요일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문 의 | 뮤직컴퍼니 정 010-4558-4585



복고를 새롭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요즘 트렌드에 착안하여 기존 영화음악의 뉴트로(Newto:New+Retro)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여 들려주는 색다른 무대 '영화보다 빛나는 영화음악'.

- 바이올린/정희은, 김보민
- 비올라/김소정 • 첼로/김하나
- 재즈피아노/조수민
- 드럼/고영석 • 베이스/이기욱
- 영화음악 작곡/안후윤
- 특별출연/바이올린 김현정, 김혜정, 이현정, 신현숙

제17회 김해국제음악제 화합 콘서트

일 시 |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김해문화회관 마루홀
 입 장 료 | 무료 초대(QR 및 전화예약, 선착순 마감)
 문 의 | 김해국제음악제 010-7508-3858



2천년 국제도시 '김해'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기념하여 한·중·일 화합과 우호를 기리는 음악회.

'베토벤 바이러스' 지휘자 서희태와 KNN 방송 교향악단이 연주하고 김해국제음악제 집행위원장이자 총감독을 맡고 있는 인제대학교 노경원 교수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솔리스트들이 출연하여 수준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올해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맞아 일본과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 '나비 부인', '투란도트' 등 푸치니의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와 동아시아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베토벤 '3중협주곡'으로 화합의 비전을 그려낼 예정이다.

- 피아노/노경원 • 바이올린/Tami Pohjola
- 첼로/Victor Coo
- 소프라노/조선형 • 테너/Hui Jin

박계전 피리독주회 피리 Ⅲ

일 시 | 5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박계전 010-3046-0204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이자 창작국악그룹 불세출 멤버, 국가무형문화재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서울시무형문화재 삼현육각 전수자, 박범훈류 피리산조 보존회 회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리주자 박계전 독주회. 국립국악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및 전문사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계전은 제1회 21c 한국음악 프로젝트 아리랑상, 제27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은상, 제25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금상, 제16회 무안 전국 승달국악대제전 일반부 관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박범훈류 피리산조' 전 바탕과 경기시나위를 들려준다.

- 장구, 징/이종철 • 가야금/하지희
- 장구/배정찬

한정민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 한정민 010-9566-0608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와 프랑스 파리 에콜노르말 Diplome Superior(석사), 경북대학교 예술대학(박사)을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한정민 독주회.

한정민은 현재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예고 강사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024년 부산문화재단 우수예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라흐마니노프와 크라이슬러의 작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작품 3 제2번, 작품 23,
 라일락 작품 21
 크라이슬러/사랑의 슬픔, 사랑의 기쁨

신효은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5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음악실험실 짜임 010-8408-6580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신효은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에 있는 신효은은 일찍이 가야문화축제 콩쿠르에서 전체대상 및 경상남도지사상 수상, 개천예술제, 부산광역시음악협회, 한국음악교육협회 콩쿠르 1위 입상하고 부산마루국제음악제(BMIMF) 라이징스타 선정 및 콘체르토 컴피티션 아티스트 부문 3위, Asia Music Competition, American Protege International Competition 1위 수상 등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와 드뷔시, 브람스의 소나타를 들려준다.

- 피아노/강은정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디 첼리스트엔 앙상블 제14회 정기 연주회

일 시 | 5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리더 김준수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들로 구성된 부산의 대표적인 첼로앙상블 '디 첼리스트엔 앙상블'의 무대. 독일어로 '첼로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지난 '디 첼리스트엔 앙상블'은 첼로가 가진 목직한 음색으로 정통 클래식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대중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르디, 빌라로보스, 생상 등 클래식을 대표하는 곡들을 들려주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신나는 행진곡으로 관객과 소통한다.

- 연주/정준수, 우리라, 성아란, 감무늬, 김하늘, 조명환, 박예리나, 김지혜, 이민지

앙상블 영 다섯 번째 이야기 **Fantasy**

일 시 | 5월 25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앙상블 영 010-7584-0799



부산, 경남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수연, 김민진, 이지원, 하연으로 결성된 앙상블 영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앙상블 영은 2022년 5월 14일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에서 열린 창단연주회 '앙상블 영,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으로 협주곡, 소나타, 환상곡 등 다양한 컨셉을 선보이며 연주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앙상블 영은 한자 '빛날' 영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주를 통해 반짝이는 순간을 관객들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쇼팽을 비롯하여 슈베르트, 슈만, 멘델스존 등 낭만파 작곡가들의 환상곡을 주제로 한 작품을 들려준다.

테너 이철성 독창회
La mia canzone italiana

일 시 | 5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이철성 010-9334-6105



동양인 최초로 엔리코 카루소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이철성 독창회.

이철성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이,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귀국, 그동안 독창회 및 초청음악회, 오페라 주역 등 다수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그의 21번째 독창회인 이번 무대에서는 1800년도 중반에서 1900년 중반까지 이탈리아 가곡 중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창곡을 들려준다.

그의 21번째 독창회인 이번 무대에서는 1800년도 중반에서 1900년 중반까지 이탈리아 가곡 중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창곡을 들려준다.

- 진행, 해설/바리톤 이승민
- 바이올린/김보민 • 피아노/박재나

2024 제 17회 김해국제음악제
피아노 갈라 콘서트 **동양의 물결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일 시 | 5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늬홀

입 장 료 | 무료 초대(QR 및 전화예약, 선착순 마감)
문 의 | 김해국제음악제 010-7508-3858



한·중·일 대표 피아니스트들과 차세대 피아니스트들이 동아시아 피아노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려 낼 피아노 갈라콘서트 '동양의 물결'.

신비로운 동양을 표현한 드뷔시의 '영상'과 포레의 '모르소와 판타지', 하이든의 '마에스트로와 제자', 윤이상 '5개 소품'을 비롯하여 세 국가의 차세대 피아니스트들이 함께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 '왈츠'와 '로망스', 스메타나 '몰다우' 등 화려한 피아노의 향연이 펼쳐진다.

- 피아노/노경원 Kiai Nara, 최원석, 김상일, Hinako Tshruga 외 중국 피아니스트 2명
- 플루트/이주형

해운대문화회관 e-플림 On Stage Concert
바리톤 허종훈의 My way

일 시 | 5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하는 e-플림 On Stage Concert.

5월 무대에서는 현재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문 오페라가수로 활동하는 바리톤 허종훈과 콘서트가이드 김성민이 아름다운 음악여행으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특히 'e-플림 On Stage Concert'는 관객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이색 프로그램으로, 연주자와 관객간의 소통을 위한 특별한 무대이다.

- 피아노/김경미

2024 영화의전당 11시 영화음악 콘서트
서정적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

일 시 | 5월 31일 금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한국영화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화음악감독을 중심으로 매월 색다른 주제로 펼쳐지는 영화의전당 11시 영화음악콘서트.

올해 영화음악콘서트에서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로 한국영화음악을 발전시킨 한국영화음악의 거장 조성우가 호스트로 참여하여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관객들을 만난다.

5월에는 20세기 최고의 영화음악가로 전 세계 많은 영화음악가들에게 큰 영감을 남긴 마에스트로 엔니오 모리꼬네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그만의 섬세하고 감동적인 선율과 멜로디, 그리고 특유의 이탈리아적인 감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의 대표작들을 감상할 수 있다.

기타공연장

연극 **편의점 진상들**

일 시 | 3월 14일(목)-7월 21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2:30, 5:00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 겪었을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극 중 주인공이 대신 속 시원하게 맞받아치며 웃음과 공감을 주는 '편의점 진상들'. 주인공 상식은 번번히 취업에 실패하여 가족들 눈치보기 바쁜 취업 준비생이다. 담뱃값이라도 벌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편의점 알바, 바쁘고 정신 없는 편의점에서 고군분투하던 중 상식의 눈에 들어온 로또 1등 종이. 로또 인생 한방을 꿈꾸는 상식 앞에 멘탈 탈탈 털리게 만드는 진상들을 맞닥뜨리며 K손놈과 맞서 로또 사수 대작전이 펼쳐지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격공할 수 있는 인생 실전 이야기가 유쾌하게 펼쳐진다.

뮤지컬 **불편한 편의점**

일 시 | 5월 1일(수)-Open run 수-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월-화요일 공연없음, 공휴일 일정 문의)
 KNN시어터
문 의 | 극단 지우 664-8400



세대불문,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휴먼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초연된 후 책을 본 관객 뿐 아니라 연극을 본 관객이 책을 구매하는 역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스테디셀러 연극으로, 이번에 센터 KNN타워에 위치한 KNN시어터에서 장기상연에 들어간다. 연극은 노숙인이었던 주인공 독고가 율혜이즈 편의점 사장 염여사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프로듀서 황기현, 연출 홍현우, 음악감독 김은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탄생한 웰메이드 뮤지컬극으로, 감각적인 선율, 극의 정서를 반영한 가사로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전한다.

연극 **오 나의 귀신님**

일 시 | 3월 28일(목)-7월 1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5/7일,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본격 빙의 로맨스 연극 '오 나의 귀신님'. 로맨스 작가를 꿈꾸는 연애 고자 재림 앞에 나타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그녀 한별, 달콤하기도 살벌하기도 한 그녀 몸엔 알고 보니 귀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낀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여자와 다른 이에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남자, 그리고 이승을 떠돌며 버킷리스트를 채워가고 있는 귀신, 한 지붕 두 사람과 한 귀신이 펼치는 바라이어티한 로맨틱 코미디가 펼쳐진다.

2024 앤서니 브라운 가족뮤지컬연극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일 시 | 5월 4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5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5천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2만2천원)
문 의 | 조이컬쳐 070-7807-0701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족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앤서니 브라운의 베스트 셀러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우리 아빠 최고야'는 아빠와 함께 사라진 엄마를 찾아 떠난 주인공이 겪는 다양한 사건들을 흥겨운 음악과 율동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멋진 아빠의 모습을 아이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아빠들을 대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로, 아빠의 사랑과 더불어 가족의 소중함을 전한다.

연극 **룸메이트: 스파이크**

일 시 | 4월 19일(금)-5월 2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00, 5:00
 어댑터 플레이스
입 장 료 | 전석 3만5천원(12세 이상 관람)
문 의 | (주)예술은 공유다 911-1447



2023 부산연극제에서 우수연출상, 우수연기상, 베스트양상불상 등 3관왕을 달성한 연극 '룸메이트'를 새롭게 연출한 '룸메이트: 스파이크'. 취업준비를 위해 상경하여 한집에 모여사는 영현, 주호, 다빈. 어느날 영현이 먼저 취업에 성공하며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겠다고 선언한다. 주호와 다빈은 자신들이 떠난게 될 월세와 공공금 때문에 마음껏 축하해주지도 못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숨기고 있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2030세대를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에 대한 이야기를 배구경기에 녹여 보여주는 이번 작품은 세여자들의 토크 서비스가 시작되며 치열한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뮤지컬 **점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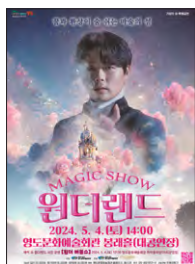
일 시 | 5월 4일 토요일 오후 3:00, 6:00,
 5일 일요일 오후 2:00, 5:00
 KBS 부산홀
입 장 료 |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36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35% 할인)
문 의 | ㈜더화랑이엔티 1800-6567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년버벌 퍼포먼스 '점프'. 무술 고수 가족의 집에 들어온 도둑들의 엉뚱한 해프닝을 그린 '점프'는 한국의 전통무예 태권도와 태권 동작을 중심으로 동양무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에 유쾌한 코미디가 더해져 대사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점프'는 2003년 초연 후 영국 웨스트엔드 4년 연속초청공연,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2년 연속'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으며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공연 최초로 한국무역협회에서 1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매직쇼 **원더랜드**

일 시 | 5월 4일 토요일 오후 2: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매직쇼 '원더랜드'. 요정들의 섬 '원더랜드'에서 만난 지니, 샌디, 션 등 3명의 요정과 마술사 엘이 펼치는 꿈과 환상의 매직쇼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번 무대에서 신기한 마술의 세계로 안내할 마술사 엘은 부산매직페스티벌 개막작 '풍문 속으로 사라진 끈들' 미디어 및 일루전 연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위한 제7회 국제컨퍼런스 피날레 공연 초청, SF영화 '승리호' 기술 고문을 맡는 등 지역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매지션이다.

특히 공연 전인 12시 30분부터 영도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인 학여울마당에서는 사전공연 '원더 버블쇼'가 무료로 펼쳐진다.

5월 가정의 달 기념 판타스틱 패밀리 매직쇼

일 시 | 5월 11일 토요일 오후 2: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5세 이상 관람)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마다 개성있는 콘셉트의 마술을 선보이는 마술사들이 총출동하는 '판타스틱 패밀리 매직쇼'. 일본국제마술대회 준우승, 전주국제매직컨벤션 우승 및 5관왕을 차지하고 해적마술을 주로 선보이는 마술사 슈가(박문수)의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2024 대만국제마술대회 808컨벤션 준우승자 코비(이영규)&피터(박진성), 2018 세계마술대회 챔피언십 FISM WCA 우승자 한민호, 국내 마스터 매지션 김현수, 마카오 국제마술대회 우승자 김민석, 세계마술협회 최고의 무대마술사상 수상자 정병구&핑키,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코믹 마술사 펍시까지 환상적인 마술의 세계로 안내한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드로잉 매직쇼 '크레용용'**

일 시 | 5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공모 선정작 드로잉 매직쇼 '크레용용'. '크레용용'은 어린시절부터 늘 어린아이들 손에 상상력을 불어 넣어 주던 크레용(크레파스)과 퍼포먼서인 용용아저씨를 합쳐 탄생된 제목으로,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 미술이라는 장르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관객 참여형 다원 공연으로, 온 가족이 함께 공연장 나들이를 통해 미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공간소극장 개관 20주년 기념 두 번째 공연 **동동 낙랑동**

일 시 | 5월 13일(월)-21일(화) 평일 오후 7:30, 토·공휴일 오후 4:00
 (일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12세 이상 관람)
문 의 | 공간소극장 010-5145-0999



지난 2004년 개관 후 순수창작 작품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는 한편, 2022년부터 한국회극의 명작을 발굴, 무대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공간소극장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두 번째 기념무대. 지난 3월, 개관 20주년 첫 번째 공연으로 선보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에 이은, 한국현대회극의 초석을 다진 최인훈 작가의 또다른 작품으로,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설화를 모티프로 활용한 '동동 낙랑동'을 선보인다.

- 작/최인훈 • 연출/전상배
- 출연/황정인, 임기현, 박호천, 김승환, 최현정, 김선이, 이선준, 김여진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일 시 | 5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11일 토요일 오후 2: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A석 3만3천원(중학생 이상 관람)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전 회차 전석 매진 및 기립박수의 신화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를 기다리며'는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작으로 에스트라공(고고)와 블라디미르(디디)라는 두 방랑자가 실체가 없는 인물 '고도'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내용의 희비극이다. 이번 무대에서 역대 최고령 에스트라공(고고)을 연기하는 신구 배우는 깊은 연륜과 특유의 재치 있는 호흡으로 친근하면서도 깊이감 있는 에스트라공을 선보였으며, 박근형 배우는 타고난 카리스마와 창의적 해석으로 거듭난 역동적인 블라디미르를 선보이며 한국 현대연극사에 길이 남을 무대를 선사했다.

뮤지컬 **복순이 할배**

일 시 | 5월 15일 수요일 오후 4:00, 7:00
 호텔아쿠아펠리스 그랜드볼룸홀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Art Revolution Theater
 010-7207-0751



사랑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서툴러 답답하기만 한 주인공 태수가 괴짜 홀로 노인 복순이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복순이 할배'는 지난 2012년 초연된 후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메이드 인 부산' 공연으로, 옛사랑 지혜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만 실패하는 태수가 복순이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의미를 배우는 과정을 재미나게 그린 작품이다. 이번 무대의 극작과 작사, 작곡, 연출까지 맡은 박정우는 괴팍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복순이 할아버지를 통해 '사랑은 지금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타공연장

극단새벽 신작 단막 모음뮤지컬
2024 우리시대의 삽화

일 시 | 5월 16일(목)-7월 13일(토)
매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효로인디아아트홀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15세 이상 관람, 단체 10명
이상 20% 할인)
문 의 | 극단새벽 245-5919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은 극단새벽이 새롭게 창작한 단막극을 선보이는 '2024 우리시대의 삽화'.

특히 어제와 오늘의 시선이 이어지는 기획공연으로, 2024년 무대에서는 취업준비생 커플의 윗픈 현실을 그린 '포포랜드(전상미 작)',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의 차이를 그린 '출근길(정선욱 작)', 통쾌하면서도 아릿한 세 여성의 뒷담화를 그린 '뒷담삼중주(변현주 작)', 오래된 아파트 상가 슈퍼주인 박씨의 어느 하루를 그린 '동구 밖 미나슈퍼(이현식 작)' 등 네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연출/이성민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용감한 구조대 레스큐 타요

일 시 | 5월 25일-26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입 장 료 | 전석 6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40% 할인)
문 의 | ㈜더화랑이엔티 1800-6567



용감한 꼬마버스 타요가 구조대 버스로 변신하여 위험에 처한 친구들을 구하러 다니는 '용감한 구조대 레스큐 타요' 부산무대.

응급 구조센터에 초대 받은 타요와 친구들, 그들 앞에 구조차들이 멋지게 등장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우리도 구조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특히 이번 무대는 실사처럼 움직이는 특별한 코스튬으로 탄생한 자동차 친구들과 함께 매핑 영상효과를 통한 애니메이션 속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면서 어린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작/오헤리 • 연출/이훈

이은결 'MAGIC & ILLUSION'-부산

일 시 | 5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9일 일요일 오후 2:00, 6:3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8만원, S석 6만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www.wsmi.co.kr



상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MAGIC & ILLUSION' 부산무대.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국내 최다 그랑프리를 거머쥐며 세계가 인정하는 마술사로 맹활약 중인 이은결은 매직콘서트 창시자답게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테크닉과 강렬한 카리스마, 깔끔한 무대매너로 관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이제껏 보지 못한 신선한 충격을 선사해오고 있다.

그의 오랜 내공이 총 집약된 이번 'MAGIC & ILLUSION'은 주제의식과 스토리가 있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미디어아트, 드로잉, 마임 등 타 예술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관객들을 환상과 상상이 결합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한다.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

일 시 | 5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24일
금요일 오후 2:30, 25일 토요일 오후
2:00, 7:00, 26일 일요일 오후 2:00
드림씨어터
입 장 료 | VIP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문 의 | 드림씨어터 1833-3755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안무가인 매튜 본의 신작 '로미오와 줄리엣' 부산공연.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마지막 장면에도 삽입되었던 남성 백조가 등장하는 '백조의 호수'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매튜 본은 이번 무대에서 셰익스피어가 쓴 불멸의 로맨스이자 프로코피예프가 작곡한 걸작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창조한다.

그는 약물, 트라우마, 우울증, 학대, 성 정체성 등 현대의 젊은 세대가 마주한 민감한 문제들을 거침없이 묘사하며 '로미오와 줄리엣'을 오늘날 10대들의 이야기로 재탄생시켰다.

해운대문화회관 가정의 달 특별기획
가족뮤지컬 전설의 황금똥

일 시 |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4세 이상 관람)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운대문화회관이 마련한 가족뮤지컬 '전설의 황금똥'.

어린 아이의 장난으로 죽어가게 된 야채밭. 오염된 흙속에서 살아남은 대파와 감자, 당근,

호박은 죽어가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전설의 황금똥을 찾아 모험을 떠난다. 과연 거대한 폭풍과 비바람, 무서운 두더지의 공격 등 위험을 이겨내고 전설의 황금똥을 찾아 야채밭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

야채 친구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기 춤과 노래로 펼쳐진다.

- 작곡, 프로듀서/김태영
- 연출/장희원
- 출연/이정재, 양동현, 김다운, 원선주, 류동희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50
해운대문화회관 3층 회의실
입 장 료 | 3개월 11만원(현장강의 9회, 음악회 1회)
문 의 | 박진영 010-3642-6436(문자문의)



뮤직가이드 박진영과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을 위주로, 유명 연주자의 연주를 영상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수업 후에는 각 나라의 민요, 가곡, 뮤지컬, 클래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세.음.여 중창단' 활동 또한 가능하다.

박진영은 부산카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해운대아카데미, 해운대인문학도서관, 연제구 클래식을 만나다 등 다양한 음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기타공연장

5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매주 월요일에는 고전, 낭만주의, 현대 관현악을, 금요일에는 바그너 오페라 특집을, 매주 주말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페라(바그너 특집)/반지 제3부 '지그프리트'(3일~4일), 반지 제4부 '신들의 황혼'(10일~11일), 탄호이저(17일~18일), 트리스탄과 이졸데(24일~25일), 로엔그린(31일)

콘서트/라흐마니노프 교향곡 3번(6일, 11일), 시벨리우스 교향곡 7번(13일, 18일),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베토벤 교향곡 5번(20일, 25일), 스메타나 '나의 조국'(27일, 6월 1일)

일요특선 콘서트/실내악 실황(5일, 19일, 26일), 발레실황(12일)

김옥균의 클래식뮤직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음악연주회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 장 료 | 10만원(2개월)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

되는 '클래식뮤직아카데미'.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음악 감상과 더불어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연주회 실황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2024년 특별기획전

수집가 傳 : 수집의 즐거움 공감의 기쁨

일 시 | 4월 26일(금)-7월 7일(일)

KT&G상상마당부산

입 장 료 | 부산박물관 부산관 기획전시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국 대표 기업가들이 대(代)를 이어 수집한 고미술품을 전시하는 부산박물관 2024년 기획전.

삼성그룹의故 이병철·이건희 회장, 아모레퍼시픽의故 서성환·서경배 회장, 화승의故 현수명·현승훈 회장, 늘원문화재단의 신성수 이사장이 수집한 고미술품 60점이 선보인다.

특히 '이암 필 화조구자도'와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이상 보물), '백자 청화 대나무무늬 각병'(이건희 회장 기증 유물, 국보), '백자 달항아리'(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보물), '청자 음각 연꽃무늬 유개 매병'(현승훈 소장, 국보), '예안김씨 가전 계회도'(신성수 소장, 보물) 등 국보·보물로 지정된 작품들이 대거 전시된다.

프로그램

가정의 달 특집 '부모' 주제 클래식음악_가곡 '어머님 은혜' 외

슈트라우스 '가정교향곡' 프로코피예프 '피터와 늑대'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_바로크음악 특집 '비발디-화성의 영감', '헨델-수상음악' 외

헝가리 음악_리스트 '헝가리광시곡, 라 캄파넬라' 드보르작 '첼로협주곡', '스메타나 몰다우강'

클래식 영화음악_엔니오 모리코네&한스 짐머의 '영화음악 콘서트' 실황

오페라감상실_푸치니 '마농 레스코' 전막감상

제194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일 시 | 5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화회

010-63670-0149

- 사회/김병래(전 KBS아나운서부장)
- 출연/조보민(시낭송가), 김승희 시인회원과 초대시인
- 초청음악가/소프라노 신진범, 테너 장원상, 시노래가수 김모하

어노니머스 프로젝트 부산

일 시 | 5월 1일(수)-9월 22일(일)

KT&G상상마당부산

입 장 료 | 균일 1만5천원

문 의 | KT&G 상상마당 부산 070-8893-0892



세상에서 가장 의미있고 독특한 아마추어 사진 컬렉션으로 평가받는 '어노니머스 프로젝트' 부산전. 영국 출신의 영상 디렉터에서 열정적인 아트 컬렉터, 전시 큐레이터로 영역을 확장해온 리술만이

우연한 계기로 구매한 빈티지 필름 박스 한 통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름 모를 이들이 각자의 필름 속에 담은 일상 사진들이 전시된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로는 담지 못하는 순간의 감성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필름사진과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코닥크롬 35mm 필름으로 촬영된 빈티지 사진은 우리에게 특별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 관람시간/오전 10시~오후 7시(오후 6시 입장 마감)



들꽃 수업

심재신 꽃에세이 / 창비교육
1만 8,500원

들꽃의 세계와 문학의 세계를 오가는가 하면, 소박하고 아름다운 들꽃 그림까지 함께 실린 독특한 에세이집. 심재신 저자는 부산의 여러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부산 성모여자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일과 생활의 틈속에서 꾸준히 다양한 들꽃들을 만나 왔다. 산책길에서, 부산의 산과 바다에서, 학교 교정에서 꽃을 만나면 꼭 눈인사를 하고 마음도 나누었다. 꽃의 건강한 생명력과 고유한 아름다움을 온 세상, 모든 사람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 저자는 꽃을 표현하고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자연을 담은 여러 문학 작품을 통해 인식의 폭을 넓히고 삶과 자연에 대한 열린 감각을 한결같이 유지하고자 했다. 이 책은 그 생생한 감각과 인문적 통찰, 이에 바탕한 자기 성찰의 기록을 모은 것이다. 국어 교사로 일해 온 저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점은 그렇다 치고, 그림 또한 아름답다. 미술교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리고 보니 글, 시, 그림의 조합이 어딘지 모르게 낯익다. 예로부터 시서화(詩書畵)를 아우르는 예술을 사랑했던 선비들이 떠올랐다. 이 책은 시서화가 멋들어지게 어우러지는 예술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다.



김달진, 한국 미술 아키비스트

김재희 지음 / 벚나래 / 1만 7,000원

‘호모 아키비스트(Homo Archivist)’, ‘미답의 길을 걷은 아키비스트’, ‘미술계 냉마주이 전설’, ‘걸어 다니는 미술 사진’, ‘움직이는 미술자료실’, ‘미술계 114’, ‘한국 미술자료계의 인간문화재’.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 관장의 별명이다. 별명은 한 인간이 살면서 쌓아온 것들을 압축한 것이다. 이 별명들은 그림 수집에 대한 열정으로 뚫뚫 뚫진 인간 김달진의 삶과 열정으로 다진 전문성을 말해주는 애칭이다. 한국 현대미술가들을 다룬 <처음 가는 미술관 유혹하는 한국 미술가들>의 저자이자 미술해설가인 김재희가 수집과 공유라는 키워드로 김달진을 조명한다. 수집에 매료된 한 소년이 미술자료 전문가로 거듭나고, 수집한 미술자료를 공적인 매체와 공간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까지의 과정을 삶에 밀착해서 조명한 전기적 에세이. 저자는 김달진 관장을 만나 16차례 인터뷰하고, 고등학생 때부터 그가 써온 일기를 읽으며 그의 그늘진 인생과 옮겨 다닌 직장, 수집에 얽힌 일화와 생각, 미술자료 수집과 관련된 정보 등을 두루두루 챙겼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술자료 전문가로서 김달진 관장의 생을 ‘수집’과 ‘공유’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열개를 짜 집필했다.



BTS, 인문학 향연

박경장 지음 / 삼인 / 1만 7,000원

“BTS의 ‘에피 페니’는 조이스 소설미학의 핵심 이론이고, BTS의 ‘시차’는 소설의 끝이라고 평가되는 조이스의 대작 ‘율리시스의’ 주요 유도동기 중 하나다. BTS 뮤비들을 짜나가는 서사와 구조에서 조이스의 ‘내적독백’과 ‘의식의 흐름’ 서술 기법을 수없이 마주쳤다. 방탄의 강물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BTS의 음악에서 내 석박사 논문이 소환되니 어찌 목까지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63세에 BTS의 음악에 빠져 아미가 된 인문학자 박경장의 고백이다. 그는 20년간 대학에서 영문학과 영미 문화를 가르쳤고 서울역 노숙인 인문학과정인 성프란시스대학에서 16년 동안 글쓰기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책은 BTS의 음악과 예술에 대해 인문학적 해석과 분석을 전해준다. 저자는 한류를 연구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BTS에 푹 빠져 ‘아미’가 되어버렸다. 저자는 제임스 조이스를 비롯한 영문학 대가의 작품들을 BTS의 음악과 뮤직비디오, 노래 가사들에 줄줄이 소환한다. 대부분의 뮤직비디오에서는 엘리엇의 시, ‘황무지’에서 보여주는 영화적 몽타주 기법을 발견하고 짚어냈다. 또, 심리학 이론을 시로 승화시킨 에이츠의 시각으로 BTS의 음악을 살펴봐기도 한다.

차재근 신임 대표이사 취임

(재)부산문화회관 제4대 대표이사에 차재근 前 지역문화진흥원장이 선임됐다. 신임 차재근 대표이사는 지역문화진흥원 원장,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문화정책 수립 및 실행에도 참여한 중앙과 지방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가이다. 특히,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 시, 철강도시 포항을 문체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끌어냈으며,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 중심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질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재)부산문화회관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2024년 문화예술체험 본격 시작



2023년부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재)부산문화회관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학생 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에서 선정한 관람 추천작품들이 2024년 1학기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으로 본격 무대에 오른다.

'어릴적예(藝)'는 어릴적+예술(藝) 조합으로 '어릴 적부터 예술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재)부산문화회관이 추진하는 매칭 사업이다. 부산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을 위해 2023년 8월 부산지역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작품 공모를 진행, 문화예술분야 전문가와 부산시교육청 추천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여한 작품 심의위원회를 거쳐 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뮤지컬, 다원예술 등 46개 단체 57개 작품을 선정했고, 지난해 12월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프라인 매칭데이를 통해 작품 관람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23년 선정된 작품들은 2024년 1월~2월 공연장과 작품, 학교와 작품의 본격 매칭이 진행되어 현재 24개 작품에 13,044명이

관람예약을 완료했다. 2학기 일정을 위해 추가 작품들에 대한 공연장과 학교 매칭은 계속 진행중이다.

4월 4일 오전 10시, 영산대학교 성심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그루잠 프로덕션의 오프닝공연 '매직 프리젠티'에 이어 4월 18일부터 참가작품의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됐다. 5월에는 1일과 2일 문화유목집단 동행의 '영화음악이야기-부산이 좋다, 영화가 좋다(부산시민회관)'를 시작으로 아트내상스의 '이상한 네일샵-소원을 들어줘',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 거품 짝 뽀 오페라 동백아가씨, 두엔터 '꿈꾸는 마술상자', 샤콘느 어린이 오페라 애니메이션 콘서트 '마술피리'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사업수행기관인 (재)부산문화회관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요자인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 2024년에는 낮시간 공연 관람이 힘든 부산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 공연을 더욱 발굴하고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르 편중, 지역 편중 등을 고려해 작품을 선정하고 홍보와 원활한 예약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4 하반기 공연프로그램(6월~12월)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마감은 공연 1일전 14시 ※ 취소마감은 공연 1일전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4. 6-12월

June - 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야구왕을 꿈꾸는 좌충우돌 마린스 야구단의 이야기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문화 | 대극장 2024. 6. 4(화)-9(일)
화·수 10:30am, 목 2:00pm, 금 10:30am, 7:30pm,
토 11:00am, 2:00pm, 일 11:00
VIP석 70,000원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만 48개월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황수미&안종도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6. 19(수) 7:3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소프라노 | 황수미 • 피아노 | 안종도
※ 7세 이상 관람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2024 마티네 콘서트 II - 푸치니

문화 | 대극장 2024. 6. 28(금) 11:00am
전석 20,000원
• 지휘 | 정주영 • 해설 | 심정옥
• 소프라노 | 우수연 • 테너 | 이동명
• 바리톤 | 안세범 • 연주 | KNN방송교향악단
※ 7세 이상 관람



오전 11시의 브런치 콘서트
2024 마티네 콘서트 III - 모차르트

문화 | 대극장 2024. 9. 27(금) 11:00am
전석 20,000원
• 지휘 | 정인혁 • 소프라노 | 박현진, 손주연
• 바리톤 | 이광근 • 첼로 | 홍승아 • 해설 | 손지현
• 연주 |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 7세 이상 관람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III&V
루돌프 부흐빈더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문화 | 대극장 2024. 6. 29(토) 5:00pm
VIP석 150,000원 R석 120,000원
S석 90,000원 A석 60,000원
• 지휘&협연 | 루돌프 부흐빈더
• 예술감독 | 다니엘 도즈
• 연주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 7세 이상 관람



모두가 하나되어 떠나는 판타지 모험!

뮤지컬 <달 사베트>

문화 | 중극장 2024. 8. 17(토)-18(일)
11:00am, 2:00pm, 4:00pm
옥토끼석 60,000원 늑대석 40,000원
• 원작 | 백희나
※ 24개월 이상 관람



조선 왕실이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

국립국악원 <중모제례악>

문화 | 대극장 2024. 8. 23(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8세 이상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4. 8. 28(수)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플루트 | 김유빈 • 피아노 | 김도현
※ 7세 이상 관람



푸치니가 가장 사랑한 여인

오페라 <나비부인>

문화 | 대극장 2024. 8. 31(토)-9. 1(일) 5: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작곡 | G. 푸치니
• 지휘 | 이병욱 • 재연출 | 김숙영
• 합창·연주 | 2024년 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객석을 전율시키는 건반 위 철학의 힘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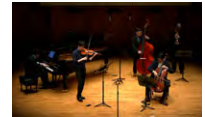
문화 | 챔버홀 2024. 10. 17(목) 7:30pm
전석 50,000원
※ 7세 이상 관람



10월을 물들이는 낭만적 만남

첼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문화 | 중극장 2024. 10. 19(토) 5: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혹부리 영감과 도깨비>

문화 | 사랑채극장 10. 22(화)-12. 6(금)
평일 10:30am, 토요일 11:00am, 2:00pm
(일·월 휴관) ※ 평일공연은 단체관람(10인 이상)만 가능
전석 20,000원
※ 36개월 이상 관람



2024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첫 국내 투어
압 판 초베덴&클라라 주미 강
with 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 | 대극장 2024. 11. 2.(토) 5:00pm
 VIP석 90,000원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현악 5중주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

시민 | 대극장 2024. 8. 17.(토) 5: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음악의 힘으로 더욱 몰입하다
카카오게임즈 게임OST페스티벌

문화 | 대극장 2024. 11. 15.(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국립현대무용단 지역상생 프로젝트
<수선되는 밤 x 정글>

시민 | 대극장 2024. 9. 21.(토) 5: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문화 | 대극장 2024. 12. 7.(토) 5: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5세 이상 관람



뱀파이어와 인간의 만남을 그린 창작 뮤지컬
뮤지컬 <배니상>

시민 | 대극장 2024. 10. 19.(토) 2:00pm, 6:00pm
 R석 66,000원 S석 44,000원
 ※ 13세 이상 관람



연말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기 공연!
2024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문화 | 대극장 2024. 12. 15.(일) 4: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2021 제42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
연극 <이단자들>

시민 | 소극장 2024. 10. 25.(금) 7:30pm
 10. 26.(토) 2: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10세 이상 관람



볼수록 추천하고 싶어지는 단 하나의 두드림!
2024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 부산공연

문화 | 중극장 2024. 12. 20.(금)-12. 25.(수)
 평일 7:30pm, 주말 3:00pm, 6:00pm,
 크리스마스 3:00pm
 ※ 36개월 이상 관람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시민 | 소극장 2024. 11. 2.(토) 2:00pm, 6:00pm
 11. 3.(일) 2: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10세 이상 관람



2024 (재)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4. 12. 24.(화) 7:30pm
 VIP석 120,000원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A석 60,000원
 • 바이올린 | 사라 장
 ※ 7세 이상 관람



'순수'로 돌아가 '나'를 마주하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시민 | 대극장 2024. 11. 22.(금) 7:30pm
 VIP석 80,000원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국립정동극장 연극시리즈
연극 <더 드레서>

시민 | 대극장 2024. 12. 6.(금) 7:30pm
 12. 7.(토) 2:00pm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11세 이상 관람



독보적 감성의 로이킴과 행복을 노래하는 소란의 So Romantic한 만남
로이킴&소란

시민 | 대극장 2024. 7. 27.(토) 5:00pm
 VIP석 121,000원 R석 99,000원 S석 88,000원
 A석 66,000원
 ※ 7세 이상 관람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인 수준높은 실내악 공연
스타츠 온 스테이지 - 리처드 용재 오닐,
양인모, 장유진, 문태국, 김한

시민 | 대극장 2024. 12. 27.(금) 7:3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회원카드 제시)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MEMBERSHIP GUIDE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 (20%),

50명 이상 (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VIP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 여파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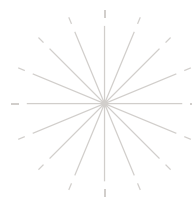
가입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능)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2024년 6월 6일(목) 오후 2:00, 7일(금) 오후 7:30
8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9일(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1인 4매)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2024 마티네 콘서트 II - 푸치니

2024년 6월 28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루돌프 부흐빈더&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2024년 6월 29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미술관 옆 콘서트홀

2024년 7월 19일(금), 9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

2024년 8월 17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4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 추후공지

2024년 8월 23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오페라 <나비부인>

2024년 8월 31일(토)-9월 1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국립현대무용단 <수선되는 밤 x 정글>

2024년 9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2024 마티네 콘서트 III - 모차르트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뮤지컬 <배니싱>

2024년 10월 19일(토) 오후 2:00,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연극 <이단자들>

2024년 10월 25일(금) 오후 7:30, 10월 2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2024년 10월 17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첵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2024년 10월 19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2:00, 오후 6:00
11월 3일(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압 판 츠베덴&클라라 주미 강 with 서울시립교향악단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카카오게임즈 게임OST페스티벌

2024년 11월 1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2024년 11월 22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연극 <더 드레서>

2024년 12월 6일(금) 오후 7:30, 12월 7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2024년 12월 15일(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재)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2024년 12월 24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스타즈 온 스테이지

-리처드 용재 오닐, 양인모, 장유진, 문태국, 김한

2024년 12월 2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흥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정기
임말섭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주)미성하이텍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홍재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전)연제구의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 신한춘 (주)금정화은 대표이사
-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 이은석 (주)엘제이이엔에스 대표이사
-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문홍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 문민우 명인제약
-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 박흥근 삼강종합건설(주)
- 성원기 하나유치원 원장
-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 이상수 엘가 대표
- 이성임 굿엔프랜즈주식회사
-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 이애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이현숙 임은자
- 정명선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 정의화 (전)국회의장
- 조성락 숙편한내과 원장
-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 허혜영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음악과 미술이 함께하는 렉처콘서트

미술관 옆 콘서트홀

숲의 정령



MUSIC & ART LECTURE CONCERT

2024. 05. 10.(금) 19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미술해설 이주현



음악해설 손지현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6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 ★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홍보마케팅팀(607-6045)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60



- 참여기간 : 2024. 4. 25.(목)~5. 15.(수)
- 참여방법 : OR코드 접속- 정답 기입-제출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4. 5. 22.(수)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2024년 4월호 낱말퍼즐 정답 및 당첨자

당첨자

010-****-4242 010-****-9307
010-****-1574 010-****-6701
010-****-4515

※ 기프트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재)부산문화회관



@배시시TV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4. 5.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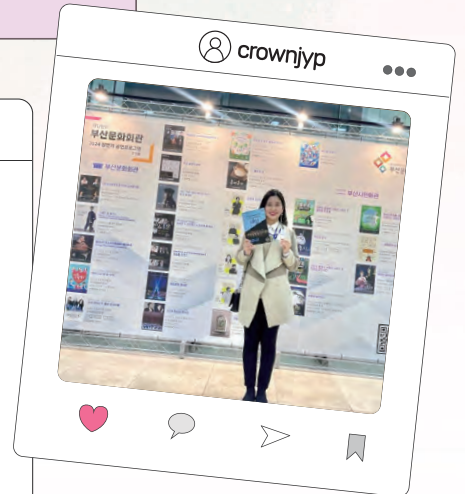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5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_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_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_6월호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4.5.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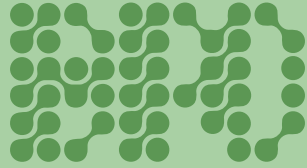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II

Zoom-in 1

트럼펫 /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피아노 / 박종훈

홈멜 / 트럼펫 협주곡
뵘에 / 트럼펫 협주곡
아르방 / 벨리니의 “노르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제임스 /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슐호프 / 핫-소나타(재즈 소나타)
거슈윈 - 독쉬체르 / 랩소디 인 블루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전석 10,000원
문의 051-607-6000(ARS1번)

www.bscc.or.kr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진선미 콘서트

트로트리 시냇바



2024년 6월 8일 (토) 오후 1시, 6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Busan
is good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World NO.1 Musical

세계를 감동시킨 뮤지엄 판타지 어드벤처 뮤지컬!



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INTERNATIONAL TOUR

2024. 5. 11.(토) ~ 12.(일) 11시, 1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 부산문화회관

티켓 | VIP 55,000원 R 44,000원 S 22,000원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interpark 티켓 tickets.interpark.com

리틀 야구
전국 최강을 향해!



MUSICAL

야구왕 마린스

2024.6.4(화)-6.9(일)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가격 VIP석 70,000원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관람연령 48개월 이상 | 에매저 및 문의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 interpark 티켓 1544-1555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회관

LIVE 부산일보사

주관 |

부산문화회관

LIVE

제작 |

LIVE

우리별스카이